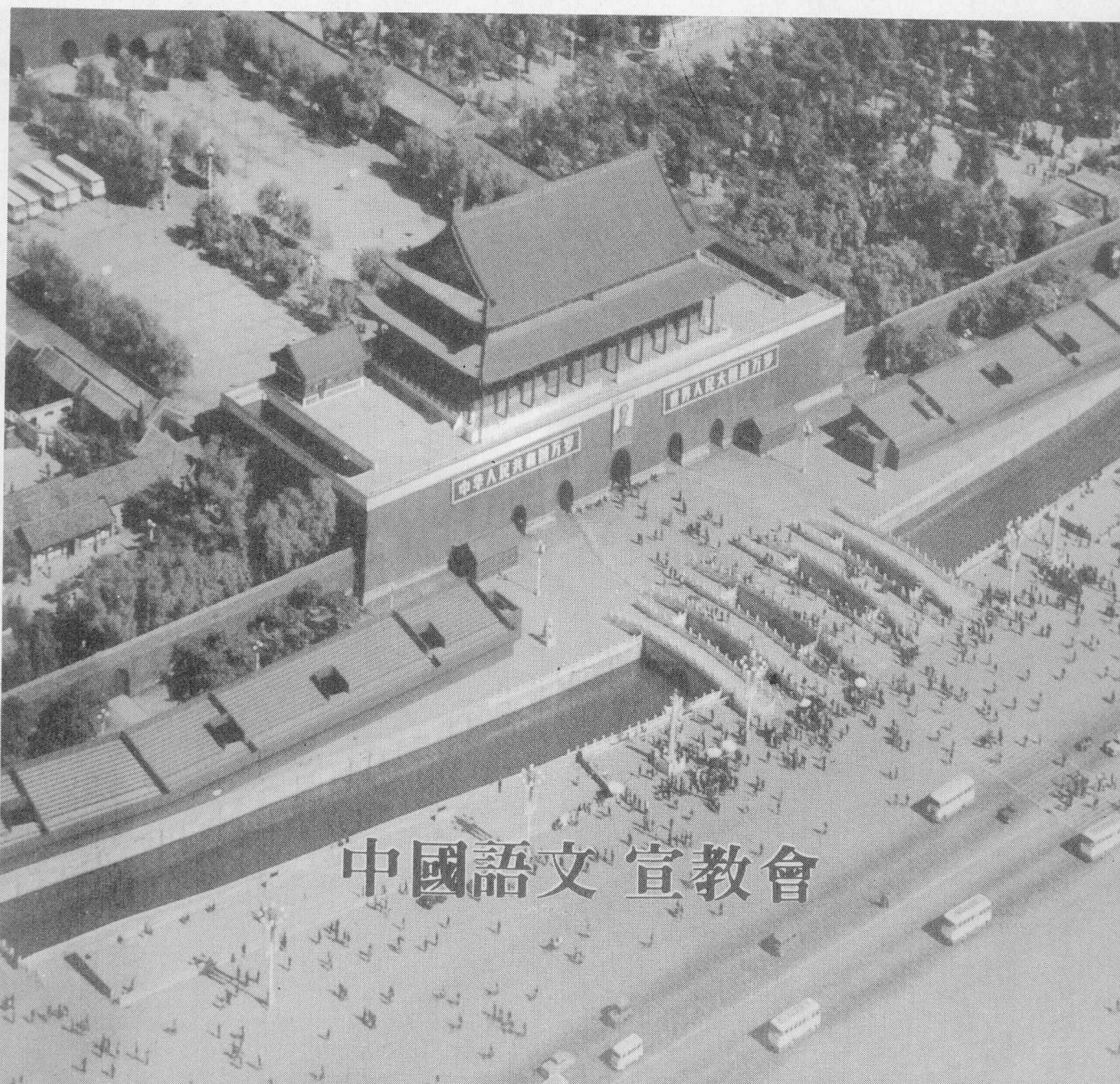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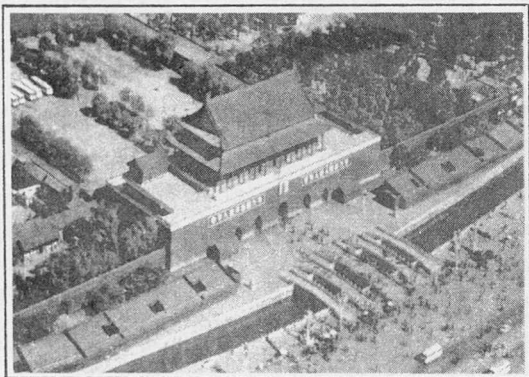
중국을 주께로

[제13호, 1991. 7/8]



中國語文 宣教會

표지사진 설명



(중국 북경의 천안문)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대로 모든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찌니라. (갈라디아서 6:9~10)

목 차

◆ 말씀	
사랑은 주고 받음에서(방지일 목사)	/ 2
◆ 선교일언	
전문연구사역자를 육성하자(박성주)	/ 3
◆ 정기세미나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박선진)	/ 6
북한선교의 현황과 전망(고태우)	/11
◆ 중국 기독교 토착화의	
필요성과 가능성(Ⅳ)	/14
◆ 특집/방한중국교포 선교	
방한중국교포 선교사역의 중요성	/17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21
고마워라 임마누엘!	/24
발로 뛰면서 주의 사랑의 전하는 선교회	/27
전도하는 재미로 사는분	/28
◆ 중국기독교인물 소전	
국부(孫中山)와 평생 사제간의 정을 나누었던 훌륭한 장로	/30
◆ 교수칼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중국선교방식	/33
◆ 중국인이 본 중국선교	
중국선교와 중국선교사명자	/36
◆ 하기수련회 강의 요약	
신앙과 전공의 조화	/40
중국어문선교회 사역방향	/42
◆ 대륙성도의 간증	
전도의 길로 나아가다	/46
◆ 중국어 성경공부	
가멜리엘의 권면	/50
◆ 사막의 단상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십니다	/52
◆ 중국의 민속풍물이야기	
새해와 관련된 이야기	/54
◆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중국동향	
국내신문에서	/56
중문간행물에서	/60
◆ 중국어로 찬양을!	
來讚美主	/64
◆ 회원코너	
코란이 새벽을 깨우는 나라	/65
◆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 활동사항	/68
◆ 선교회소식	/70
◆ 기도제목	/72
◆ 알림	/75

사랑은 주고 받음에서

방지일 목사 (본선교회 고문)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일 4:7)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진미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선교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받는 데서 주님을 바로 알게 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랑을 주기만 하면 마치 내 사랑을 주는 것인양 착각하게 되어 내가 사랑의 주체가 되고 맙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그 상대 인간의 사랑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예속적으로 주종(主從)관계가 되어버려 하나님의 사랑은 맛보지 못하고 인간의 동정에 끌리게 됩니다.

선교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여 그 분과 함께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맛볼 때 대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흔히 선교현장에서 사랑을 마치 값싼 동정 베풀듯이 하여 사랑을 주

고 받는 관계가 주종의 관계로 전락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가리워지고 맙니다. 동정적 사랑을 받으면서 믿는 예수는 남의 예수를 그 동정적 사랑에 싸서 받은 것이 되고 마니 그는 예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동정적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동정의 사랑을 베풀 때 예수도 그 속에 싸서 같이 주었으니 예수가 그에게 한 부속으로 전달된 듯 하겠지만 결국 그는 전달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동정의 사랑만 받았을 뿐이지 예수를 전해 받은 것이 아니기에 동정의 사랑이 끊어질 때 예수도 함께 그 마음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날 흔히 예수를 어떤 사회봉사에 감추어 전하자고 하는 소위 사회운동자의 선교의 길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동정을 베푸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구속의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받는 그 자세가 동정적인 것 보다는 힘들기는 하지만 이를 전해야 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합니다. 바로 받은 후에는 그가 내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하게 한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내가 연민에 의한 사랑을 받아봤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연민의 그 사랑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 사랑 또한 결코 내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전문연구사역자를 육성하자

박성주 교수 (본선교회 대표)



연구사역의 필요성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중국복음화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중국과 중국교회 및 선교전략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교회가 중국선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역에 나서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철저한 연구작업이 바탕에 깔려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뜨거운 열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중 결국 그동안 우려해 오던 일이 최근에 이르러 현실화되고 말았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문화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교회 성도와 교역자들이 중국을 방문해 과도하게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뜻을 정부측에 전달해왔다고 밝히고 전국교회에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한국의 교회들이 좋은 의도에서 행해온 선교사역의 결과가 어쩌다가 이와 같은 꼴이 되었는가? 우리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중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나무랄 심정이 못된다. 이는 상당 부분 중

국에 대한 한국교회의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종교인들이 조선족을 대상으로 집단예배 및 찬송가 합창, 성서 및 전도용 전단을 과도하게 배포하는 등 과도한 선교활동을 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거부감이 팽배해 있다”라고 지적한 문화부 관계자의 발언은 안타깝게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한국교회가 중국선교사역에 나서기 전에 좀더 겸손하고 신중하게 현지의 상황을 연구·검토하여 지혜롭게 선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더라면 중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비판만 할 것은 아니나 이번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의 허점을 짚어보고 지금부터라도 시정하여야 할 것은 시정해 나가기를 바란다.

우리의 부족한 점 중의 하나는 중국에 대한 연구의 미비이다. 위에서 언급한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우리는 연구사역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전문연구사역자 한 명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실로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일면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제부터라도 연구사역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작업은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작업은 훈련되고 준비된 전문인력에 의하여 오랜 시일과 노력을 들여야만 가능하다. 지금까지 중국선교에 대한 연구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연구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 일은 반드시 꾸준히 진행되어야만 한다. 또한 해외의 중국선교기관들이 쌓아온 경험과 연구성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거울로 삼아 한국의 실정에 맞는 선교전략을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능하고 헌신된 연구사역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초교파적인 차원에서 이 연구사역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중국선교문제연구소(가칭)와 같은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을 추진하여 연구사역자들로 하여금 팀사역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중국선교전문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준비작업이 선행되지 않고는 한국의 중국선교가 더이상 발전해 나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연구사역자의 육성방안

그러면 전문연구사역자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에 대해 몇 가지 시행방안을 제시해 본다.

가. 우선 연구사역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첫번째 순서이다. 연구사역자도 순교를 각오한 하나의 선

교사이다. 이를 위해 평소 그러한 인재를 찾는 노력과 많은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연수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해외의 우수한 전문기관에 파견하여 일정 기간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며 전문기관에 의뢰해 일반선교사훈련을 받게 하는 것도 좋다. 이들이 갖 추어야 할 능력 가운데는 중국에 대한 폭넓은 이해, 중국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 한국교회의 선교실태 파악, 중국어 및 영어 실력 배양, 자료 취급능력과 보고서 작성능력, 겸손과 순종의 신앙인격, 말씀과 기도의 능력 등이 포함된다.

다. 이들로 하여금 수시로 선교현장을 답사케 하는 한편 현지사역에의 참여경험을 쌓게 하여 현장감 있는 연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라. 생활문제를 비롯한 주변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전문연구사역자는 고도의 지적능력을 요하므로 신경이 매우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다. 가능한 한 연구사역 외에 다른 일에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및 연구환경 제공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마. 연구에 필요한 도서 및 각종 연구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바. 이상의 방안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인식을 같이 하는 교회 및 성도들이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본선교회의 계획

중국어문선교회는 연구·교육·번역·출판사역

국내는 선교연구, 특히 중국선교의 체계적인 연구에는 불모상태이므로 해외의 중국 선교연구기관에 나가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아울러 중국어와 영어를 좀더 연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연구원 자신을 위해서나 본선교회사역을 위해서나, 나아가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을 취지로 창립되어 주요사역 속에 연구사역을 포함시키고 전문연구원 1명을 영입하여 지난 1년여 동안 나름대로 연구사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초보적인 작업만 해도 작업량이 방대하여 아직 그 결과물이 나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1명이 감당할 수 있는 작업량이 극히 제한되므로 뜻있는 동역자들의 협력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주님께서 유능한 전문연구원을 좀더 보내 주시며, 이에 따른 재정을 채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연구원 1명을 해외전문기관에 파송하여 연수를 받게 하고자 한다. 국내는 선교연구, 특히 중국선교의 체계적인 연구에는 불모상태이므로 해외의 중국선교연구기관에 나가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아울러 중국어와 영어를 좀더 연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연구원 자신을 위해서나 본선교회사역을 위해서나, 나아가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대상지로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싱가포르가 적임지가 아닌가 여겨진다.

연수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잡고 있으며 본선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물론 귀국하면 다시 본선교회에서 연구사역을 담당한다. 연수기간 중에도 서신, 전화, FAX 등을 통해 연수진행상황보고는 물론 본선교회가 부여하는 연구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본선교회의 연구사역이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참고로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는 대략 다음과 같다.

왕복여비	50만원 * 2회	=	100만원
정착금			200만원
매달경비(학비 포함)	50만원 * 18개월	=	900만원
계			1,200만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연구사역자 1명을 육성해 내는데 드는 비용은 가령 교회들이 일시적인 선교여행을 위해 들이는 경비만을 들어 비교해 보더라도 의외로 적은 액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효과는 아무도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 전문연구사역자의 육성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이러한 방안이 구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겨지는 데는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요청된다. 연구사역은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은 아닐지 모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교사역을 시행착오 없이 효과적으로 이루게 하는 가장 첩경이 되는 일 중의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박선진 선교사 (지구촌선교회)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 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 2:8-11)

저는 이 세미나에서 선교를 위해 선교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와 저의 사역지인 태국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제가 사역하면서 보고 느낀 경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 선교사

먼저 선교와 전도에 대한 용어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인도네시아같은 나라는 한 나라 안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비록 같은 나라 안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나라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것 같지만 아시아에서 선교사 파송 순위가 5위입니다.

선교를 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선교사를 제 나름대로 정의해 보면 ‘선교사란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필요없도록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중요한 뜻은

선교사는 주역이 아니고 무대 뒤에 가리워진 사람으로 조금씩 서서히 사라져 버리고 그 자리에 현지인을 세워 현지인이 직접 일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선교사가 하던 그일을 현지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일이 선교사의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선교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부르심이 분명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선교하도록 부르심이 분명한 자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지에 가보면 안되고 어렵고 문제되는 일만 맡게 된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자기 혼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단과 협의를 해야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이 하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맡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견디어 낼 수 없습니다.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그 부르심에 힘입어 인내할 수 있거나 부르심이 없다면 결국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② 교회에 소속을 가지고 있는자:

성경적 원리에 의하면 선교사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교회

에서 파송되었습니다. 선교사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교회 교적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파송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현지인을 전도해서도 현지교회에 연결시켜 주어야 하며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현지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선교사가 현지에서 가서 선교를 할 때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를 심겠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현지 교단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교단이 많은 이유가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교단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③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자:

현재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타국에 가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서 목사, 친구,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주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열매로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II. 생 활

선교지에서의 생활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나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34살에 태국 땅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지금 나이는 40세입니다. 제가 6년 동안 살면서 느낀 것을 통해 선교사가 현지에서 생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현지어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것이 언어문제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말을 잘했지만 태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문맹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이셨는데 낮아지셔서 이 땅(타문화)에 오셔서 때가 되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늘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대인의 말(현지어)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선교사의 모델입니다. 선교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현지어를 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태국말은 5성이 있어서 같은 발음이라도 높고 낮음에 따라서 다른 뜻이 됩니다. 제가 어느날 식당에 가서 밥 8그릇을 시켰는데 오리고기 덮밥이 나왔습니다. 제 발음이 잘못되어 전달이 잘못된 때문입니다.

②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만나게 되면 음식을 먹게 됩니다. 얼마나 그 나라 음식을 잘 먹느냐에 따라 그 나라 사람들과 얼마나 친해질 수 있느냐가 달려 있고 얼마나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처음 태국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은 '안란미' 쌀로 밥을 해먹기 때문에 쌀에서 심하게 냄새가 났습니다. 또 모든 음식엔 독특한 향료가 들어 있을 뿐 아니라 맵고, 시고, 짜고, 자극적입니다.

제가 어느 날 다른 선교사들과 라오스 사람 집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태국의 북동부인들로 찹쌀을 찐 것, 대나무순에 닭을 넣어서 끓인 닭도리탕(그 속에는 향료가 들어 있었다), 생선요리, 생선간장(우리나라 젓간장 같은 것), 태국의 쥐똥고추(얼마나 매운지 원자탄 고추라고 부른다), 대나무잎과 어린 가지(데쳐서 찢어 먹는다) 등을 차려놓은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손님을 초대했을 때는 식구들이 전원 집합해서 손님들이 식사를 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손님과 같이 앉아 있는 것이 그들의 예의라고 합니다. 그 음식상을 받고 정말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

을 위해 이 곳에 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처럼 찌놓은 찹쌀을 오른손으로 떼어 다시 손으로 조물락거린 후 맛있는 것처럼 먹었습니다. 한 가지만 먹으면 안될 것 같아 이것저것 먹으면서 맛있다고 칭찬을 하자 그들은 좋아하면서 더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들의 음식을 얼마나 잘 먹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문화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가 달려 있습니다.

③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선교하고자 하는 대상국은 보통 제3세계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상태인데 그렇다고 현지에 가서 '이 사람들은 바보 같다', '이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그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기 쉬운데 그런 말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인의 몸을 통해 오셨다는 사실은 그 분이 낮아져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셨는데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선교사의 모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태국 사람들은 집을 물위에 짓는데 집 모양은 원두막과 같습니다. 42℃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이 더운 나라에서는 물가가 가장 비싼 땅이며 강이 발달한 '강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기이기 때문에 땅에서 살면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땀, 벌레, 해충이 많은데 해를 입지 않으려면 물이 가장 안전하고 좋으며, 집에 계단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면 안전하고 목욕, 빨래, 밥을 하는데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고, 날씨가 더워 시원하게 살려고 문도 만들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비판하지 말고 그들이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까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문화를 쉽게 배울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④ 현지인을 낮추어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유대인이 신던 샌달을 신고 유대인이 입었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12살 때 예루살렘성전에 가서 말씀도 배우고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도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과처럼 사셨습니다. 선교사는 그들 문화 속에 들어가 그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태국에 가보니 그 곳에서는 여자도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상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도 사회를 보고 설교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태국에 교회가 800여 개 있는데 절반이상이 목회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 장로, 집사가 설교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은 침묵한 채 그 나라의 생활습관을 알기 위해 배웠습니다.

Ⅲ. 사 역

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현지에 가서 선교사역을 할 때 현지인(교회)으로 하여금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과 사람을 세우는 일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이 우선이지 일이 우선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우선하고 사람을 두번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일은 무진장합니다.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현지인을 세워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그들이 실수하고 서투른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② 현지인(교회)과 협력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으며 혹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지인과 현지교회와 상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③ 기다리고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태국에서 미국 장로교 선교사가 선교를 할 때 첫번째 세례교인을 얻는 데 1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8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으나 19년째 한 명을 결신시킨 것입니다. 그 인내를 생각해 보면 그 분이야말로 위대한 선교사이며 뿐만 아니라 그 분을 후원한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3년만 지나면 몇 명이 신자가 되었느냐? 몇 명이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는 몇 개를 개척했느냐? 면서 재촉을 합니다. 한국교회도 선교사도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OMF에서 파송한 미국 선교사 부부는 태국에서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2가정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2가정 때문에 온 땀과 젊음을 드린 것입니다. 한국 같으면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모든 나라를 한국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가서 몇 명에게 전도할지, 몇 명의 결신자를 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④ 다른 선교사나 다른 선교지와 비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선교지는 잘되기도 하고 어떤 선교지는 안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과 내가 하는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좌절하지도 비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내 뒷사람이 할 것입니다. 한국사람은 항상 너무 급한 편인데 인내하면서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국 방콕의 옛 프라케오 사원)

저의 사역지인 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에도 중국교포들이 1억 정도 살고 있습니다. 태국에 살고 있는 산족(산악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본의 아니게 산족이 된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택동에게 몰린 중국 정부군이었던 장개석군입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우리나라 사람이 사는 초가집과 똑같습니다. 중국인을 선교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국인 중 94%가 불교도이고 모슬렘이 4%, 정령교(에니미즘) 1.5%, 천주교 0.3%, 개신교 0.2%입니다.

태국의 불교도들은 매일 아침 6시 30분만 되면 밥을 해서 밥을 들고 거리로 나가 지나가는 중들이 그 밥을 먹게 하며, 학교에서도 매일 아침 7시 30분 아침조회 때 운동장 원편에 세워져 있는

불상에게 기도한 후 수업을 시작합니다.

남자가 장성하면 무조건 절에 가야 하며 부모들은 아들을 낳으면 당연히 중이 되어 주길 원합니다. 집마다 귀신단지·불상이 있는데 부자일수록 한 방에 불상이 가득가득있고, 집에다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각 절마다 굴뚝이 있는데 그곳이 죽은 사람들의 화장터로 곧 그 곳이 무덤입니다.

태국에는 1828년에 복음이 전해졌고 태국의 기독교 역사는 164년이나 되었습니다. 태국의 최초 선교사는 '구출라프'인데 구출라프는 중국을 거쳐 우리 나라 충청도에 들어와 감자씨를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했고 중국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해 처음으로 한국어 성경책을 만들어 주기도 한 분입니다.

태국에 교회는 800여 개 되고 그 교회들 중 절반이상이 교역자가 없으며 믿는 사람은 국민 500명 중에 1명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1등 국민은 불교도이며 예수를 믿으면 2등 국민으로 격하되고 소외되고 맙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정과 친구들에게 소외되고 직장에서도 승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시골지역에 뭉쳐서 사는데 불교도들의 손가락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아니라 농사지을 때 서로 돕고 위로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태국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소승불교국인 캄보디아와 월남이 공산당에게 먹혀버리자 같은 소승불교국인 태국인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가 도와주고 지켜주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웃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로 경제발전이 됨에 따라 지식이 향상되고 있어서 인재를 키울 학교를 세워야 하고 고급 두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 서구의 학문을 수입하게 되고 따라서 기독교 문화가 자

연히 태국에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세째로 직장을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해 듣고, 믿고 싶어도 부모, 형제, 가족들 눈치 때문에 못 믿었는데 도시이주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떨어져 혼자 살게되니 예수 믿기가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태국이 복음화 되면 미얀마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캄보디아로, 캄보디아에서 월남으로 복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1956년 한국에서 태국으로 최찬영 선교사 (현재 홍콩UBS 아시아 디렉터)를 처음으로 파송했습니다. 현재는 신흥식 선교사가 21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교회와 전도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례교인이 20명 이상일 때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교회가 800개라고 한 그 속에는 전도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국에서 교인이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면 5위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는 2천 명 모이는 오순절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600명 모이는 오순절교회가 있고 300명 모이는 중국인교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태국에 가서 사역하는 분은 주로 여자들로 5~6명 정도 됩니다. 그들은 간호사, 불우여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 기숙사 사감, 교수요원 등으로 일하면서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인구의 12%가 중국인이고 그 중국인들은 대부분 부유층에 속합니다.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중공업, 경공업, 은행 등 경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중국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뜻이 있는 분은 태국에 가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 받길 기도합니다. ◆

북한선교의 현황과 전망

고태우 교수 (북한선교원)

해방 이전의 북한교회 실상이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으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약 1,500개의 교회와 3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들은 강양옥 목사에 의하여 짚그리 말살되었다.

강양옥은 김일성의 외조부뻘로서 그는 일본 중앙대학 예과를 수료했고 1923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 1928년에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일성이 소련군의 도움으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강양옥은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서기장이 되었다.

토지개혁을 통한 교회재산의 몰수에도 일익을 담당하였고 조만식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세력을 제거하는 데도 앞장을 섰는데 기독교인을 죽인 이유는 다분히 개인적인 감정도 개입되어 있다고 본다.

1946년 3월 반탁 학생들과 기독교생들이 강양옥 목사의 집에 수류탄을 던져 그의 자녀들이 다치게 되자 “원수들은 목사라고 하여 가리지 않는다. 오히려 목사였기 때문에 더 피를 물고 날린 것이 아닌가. 총을 든 원수에게는 총으로”라고 외치면서 교회에 대한 파괴 활동을 강력하게 진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강양옥 목사는 북한교회를 다 없애버렸는데 1988년 그의 아들인 강영섭 목사가 북한에 불수교회를 다시 세우게 된 것을 보면 이는 실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공산주의에 기독교와 천도교가 가장 강하게 저항했는데 이때에 800여 명의 순교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북한교회가 전혀 정리되어 있지 못하여 확실치는 않다. 한국 교회는 해방 이후의 북한 자료가 없다고 핑계만 하지 말고 통일

을 대비해서 북한교회사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야 한다.

북한의 김일성은 종교를 반대, 탄압했지만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한 것은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선교다 통일이다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을 소홀히 여기면서 그것을 일부 전문가, 학자들에게만 필요하고 일반인은 필요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공산주의와 종교간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고 공산주의와 기독교간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시대에는 불교나 이슬람교가 없었고 기독교만 있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전통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해 온 논리적인 근거를 요약해 보자.

첫째, 그들은 기독교를 “착취계급(지주와 자본가)이 비착취계급(노동자와 농민)을 착취하기 위한 정신적 도구로서의 기독교”라고 정의를 내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금에 관한 문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에서도 깊게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 공산주의는 정신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유물론적으로 육체적인 것만 이야기한다. 북한식 표현으로 “상층종교계 인사들은 일도 하지 않고 놀며, 하층종교인들에게 돈만 내라고 강요해서 돈을 거둔 다음, 일도 하지 않고 기생충처럼 부화 방탕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교회가 정신적으로 기여하는 측면, 사회에 봉사하는 측면을 도외시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충분히 행동과 이론으로 답할 수 있기 전에는 북방선교가 원할하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반기독교논리는 종교를 제국주의 침략의 첨병으로 보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현재 중국이나 북한이나 마찬가지로

다. 진보적 시각에서 보는 평화봉사단을 그들은 “십자가를 든 미제 송냥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면 언더우드선교사를 제국주의가 침략하기 위해서 보낸 미국간첩이라고 매도했다. 북한 잡지 「천리마」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절을 보급했던 윌리엄 제임스 홀에 대해서도 “입원한 사람들을 동물처럼 실험대상으로 삼아 의학기술을 높일 목적으로 인간 도살장 구세병원을 만들었다”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 이렇듯 종교를 제국주의 침략을 위한 첨병, 간첩으로 보기에 종교를 반대한다.

세째, 반기독교논리의 하나는 종교와 미신을 동일시하는 관점이다. “종교는 일종의 미신이다.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상 다 미신을 믿는 것이다.”(김일성 저작선집1권) 이와 같은 논리는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대중들은 미신이란 허황된 것이며 종교는 조금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똑같은 것이라고 하면 호소력이 크기 때문이다.

종교와 미신을 동일시하는 점은 북방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로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커리큘럼에 “샤마니즘 비판”, “북방선교론”, “북한 기독교론” 등을 개설해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와 미신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마치 무당과 목사님의 차이는 무엇인가? 샤마니즘의 치유와 기독교의 신유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과 같다. 요전에 만주의 친지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친지의 말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하면서 성경도 읽지 않은 채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며 자기의 말대로 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친지는 가지고 간 성경을 그에게 주면서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기초를 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그가 그 책을 받아서 읽어 본 후에 그것이 기독교신앙이라고 인정했다고 한다. 또한 만딩고라는 책에서 묘사된 목사를 보면 미국 기독교 개척시기에는 목사와 무당과 다

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샤마니즘을 공부해야 한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 지은 첫 교회가 이백 년 후에 술집으로 변했듯이 한국교회도 쇠하게 된다면 첫째는 돈 때문에, 둘째는 샤마니즘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샤마니즘이란 아주 독특해서 적응력, 흡수력이 굉장히 강하다. 무당들을 조사해 보면 예수를 자기 신으로 모시는 무당도 있는데 예수를 자기 신으로 모시는 이들에게 “당신은 예수교인입니까?”하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나는 무당인데 내가 모시는 신이 예수다”라고 대답한다. 기독교나 불교처럼 경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종교며, 교리이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적응해 나갈 수 있다. 불교도 또한 1,600년 동안 샤마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주관상을 보는 것, 칠성각 등은 샤마니즘에서 온 것이다. 원래 불교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해탈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기복신앙도 샤마니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종교와 미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기독교가 북방선교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로 등장할 것이다. 믿는사람이 1/4이나 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와 미신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에게 납득시킬 것인가?

현재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 3,000여 명이 무직자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북한이 통일될 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냥 있지 말고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 기독교는 엄청난(?) 부자이면서도 「북한교회연구소」 하나 없으며,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열성적이면서도 신학교에 북한에 관한 강좌 하나 없고, 북한을 주제로 한 논문 하나 제대로 없다.

한국 교회나 신학교에서 「북한교회 연구소」를 만들어 뜻있고 똑똑한 신학생 몇 명을 뽑아 북한

교회를 연구하면서 “공산주의 이론” “공산주의 실제 연구” “북한 역사 연구” “조선족 역사 연구” 등을 해 왔다면 북한에 봉수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짜다, 진짜다 라는 논란은 안 생겼을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주체사상과 기독교는 같다고 말하고 있어 한국 교회의 회오리 바람이 되고 있다. 또 기독교의 영생과 주체 사상의 영생이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었다면 이럴 때 한국 교회가 조용히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자기의 마음대로 행한 피조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을 구원사라 한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사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다. 그런데 왜 구원계획에 참여하여야 하는가? 사람의 가장 커다란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데 이 죄를 우리가 깨우쳐 주어야 한다. 공산주의의 선교는 다른 서방 나라에서의 선교와는 다르다. 서방세계는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지만 공산주의세계는 이론적, 환경적, 정치적으로 선교환경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공산권 선교는 특수훈련, 특수무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을 깨우쳐 주는 역할로서의 선교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 북한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중국이 개방 되었다고는 하지만 경제와 생활에서의 개방이지 정치와 이념의 개방은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개방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중국은 민족이 다양하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이념이 많으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개방하지 않고 묶어놓고 있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선교하는 것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변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변화하려면 개혁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폴란드나 헝가리의 개혁세력은 교회에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교회도 없고, 김일성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 15만 명도 독재특별대상구역에 가 있어서 유일한 개혁세력은 외국에서 공부한 인텔리들밖에 없기에 개혁이 어렵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개혁 압력밖에 기대하기 어렵다.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려 하고 있어 선교할 기대가 커가고 있는데 알아야 할 것은 인적교류에 크게 기대를 가지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북한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이다. 북한은 호적이 없고 가계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까지 남조선에 친척이 없다고 속여 오다가 남조선에 친척이 있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 하고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일부지역(평양, 원산, 남포, 천진, 신의주)을 제외하고는 개방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간에도 물건과 인적교류가 필요없기 때문에 길이 안 뚫려있다.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길은 경제교류와 사랑의 쌀 나누기 등이다. 이 경제교류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북한 선교에 참여하려면 경제요원으로 기업에 참여하거나 물품을 보내므로 참여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때 쪽복음을 제작해서 보내는 것도 연구해야 한다. 북한에 예배당을 가 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빨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북방권 선교가 모두 그렇듯 북한 선교는 북한을 연구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비록 적은 무리,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북한의 실상, 그들의 의식을 연구하여 우리와의 차이점과 선교의 난점 등을 찾아내야 한다. 귀순한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택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아버지 강양육이 없던 교회를 아들 강양육이 다시 세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신랑오실 때를 위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북한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중국 기독교 토착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Ⅵ)

- 중국교회 역사발전의 관점에서 검토함 -

林治平

(연구부 제공)

Ⅳ. 중국의 기독교토착화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

중국 토착화운동 발전의 첫 단계는 경교시기이다. 이 때의 것은 완전히 불교화된 경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본체인식의 과정에서 자신의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수많은 사상과 부호를 다 불교에서 차용하였기 때문에 당나라 무종시기에 이르러 불교금지에 뒤따라 금지당했다. 이 결과 두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나는 경교 토착화 실패의 경험이 토착화를 제창하는 인사들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하여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방도를 찾게 한 일이고, 또 하나는 토착화를 반대하는 인사에게 핑계거리를 남겨주어 중국에서의 기독교토착화의 시행에 대한 반대 근거를 제시하여 반대의 소리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토착화가 가능치 않거나 토착화를 반대하는 많은 인사들은 항상 당나라 경교의 토착화를 예로 들어 그 논리를 지탱하는 경향이 매우 짙다.

토착화운동의 제2단계는 명나라때의 천주교의 전파에서 시작되었다. 마테오 릿치같은 예수회 신부는 토착화에 매우 힘썼는데 사상측면에서 부호의 측면까지,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가치, 祭祖祀天尊孔 등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동시에 마테오 릿치는 중국 상층지식계층을 흡수하려고 대단한 애를 썼는데 전통문제에 관심이 많은 소수의 지지를 얻게되어 일단계의 토착화는 매우 성

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애석한 것은 이후에 의례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쌍방 문화의 근원에게까지 비화하여 반발이 특히 심했고 상호간에 용납하지 않아서 마침내는 분열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는 중국교회가 수백 년 동안 잘 대처하거나 해결방도를 깊이 강구한 적이 없어서 기독교는 줄곧 중국에 뿌리내려 깊숙이 파고들 수 없었다. 어떤사람이 '중국복음화의 상한선'을 내놓았는데 그에 의하면 기독교신도가 시종 인구대비 3%가량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즉 기독교가 어떤 문화 가치상에서 토착화, 연관화를 하지 못한다면 서양종교의 위치에 머물러 있게 될 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중국인은 5%를 넘지 않게 되리라는 설명인데 각 중국인 거주지의 기독교 인구 비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 이 설은 매우 타당한 것 같다.

전체 역사를 헤아려 볼 때 이른바 토착화의 논쟁은 두 종류의 형태가 있다. 하나는 배타적 토착화운동으로 외래문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항이며 외골수로 자기의 문화만을 견지하는 것으로 이 현상은 19세기에 매우 보편적이었다. 당시 서방문화는 그 강한 세력과 함께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들어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문화는 해체와 붕괴의 위기에 봉착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무격(巫覡)식의 현지토착화운동의 거센 반발을 만나게 되었다. 또 하나는 융화식의 토착화운동으로 외래의 문화를 취사하여 본토문화와 융합시켜서 재정비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애석하게

도 중국의 상황은 전자에 속한다는 것이다. 19세기에 복음이 중국에 들어올 때 강제적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는데, 정치 외교 군사 및 불평등 조약의 조인을 통해서 중국인에게 서방인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억지로 받아들이도록 강압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중국인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 그리고 선교사가 접촉한 사람은 대부분 상류사회나 고급 지식계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향력에 한계가 있었다. 최초의 유학생 중에는 비록 선교사가 유학보낸 사람이 적지 않았으나 그들이 명문세가의 자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중국 대전통 사상이나 이념의 속박을 비교적 덜 받았고 출국 후 서방문화에 접촉하고는 그것을 따르므로 왕왕 중국사회로 부터 이단시 되었다. 더욱 불행한 사실은 각종의 교회 경로를 거쳐 출국한 사람들이 서방에 머물러 서방 문화를 학습하던 때가 공교롭게도 서방에 반기독교사상이 도래했던 19세기였기 때문에 많은 비기독교유학생들이 귀국후 결국 반기독교인이 되었고, 다른 많은 기독교유학생들은 극렬한 신신학에 속하는 자들이 많아서 정통적 복음의 입장에선 교회인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화단의 난」 역시 외래문화배척운동——특히 기독교문화가 산생시킨 무격식의 배외운동이었는데 당시의 중국에게는 대단한 자극을 주게 되었다. 그 후의 많은 중국의 기독교인이나 선교사는 중국에서의 기독교토착화운동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상 1860년 영·불연합군 이후 1900년의 8국연합군까지 사이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중국 사회문화와 중국인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며 아울러 이 문제에 관한 격렬한 논쟁을 전개하였다. 8국연합군 이후 선교사들은 더욱 중국 사회문화와 선교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되어 토착화운동은 다시 소생되기 시작하였다. 20세기는 세계적 조류에서 보면 바로 민족주의의 흥성시기로 각지 각민족의 민족주의운동이 활발해졌으며 중국은 더욱 그러하였다. 그리하여 수십 년 간에 걸친 중국의 민족적 울분과 슬픔에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환경하에서 두 종류의 토착화운동 현상이 생겨났다. 하나는 완전한 반기독교운동으로 중국으로 돌아갈 것을 힘껏 주장하고, 중국정치현상에 관심을 기울이지는 것으로 민족주의적 입장의 기독교에 대한 반대이다. 또 하나는 기독교가 이처럼 강열하게 배척당하는 것을 보고 교회가 자각하기 시작하여 중국교회가 기독교토착화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을 한 것이며 아울러 일련의 중국 기독교토착화운동의 시도를 하였다는 것이다.

중국교회사의 각도에서 보면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중국에서 토착화를 주장하는 인사는 대부분 신앙상 신신학에 속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많은 보수신앙의 중국크리스찬도 중국에서의 기독교토착화에 노력했는데 이런 보수신앙을 가진 인사가 추진하는 중국에서의 기독교토착화운동은 이를테면 워치만니의 집회소나 참예수회운동, 예수가정, 왕명도의 북경기독교교회당처럼 모두 교회 내에서 상당히 배타적 현상과 색채를 띄고 있었다. 이러한 토착화운동의 영향력은 매우 컸으며 더욱이 중국의 지방교회 건립에 공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을 직접 읽고 원래의 전통신학이나 교회관념이 무엇인지는 상관치 말자고 주장하였다. 왕명도는 『모든 무리의 감독이 되어』라는 글에서 그의 마음속의 토착화교회가 어떤 근거를 가져야 하는지를 매우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이런 신학상의 자립, 자전, 자양의 교회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해외에서 흥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교회의 모습이며 이른바 지방교회의 모형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수많은 중국교회는 다 워치만니, 왕명도의 이런 면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참예수교회는 은혜파에 속하며 예수가정은 일종의 완전한 생활실천으로 사도행전 시대로 돌아간 일종의 예수의 대가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운동은 당시 교회는 물론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런 까닭에 이 부문의 토착화운동은 우리들이 중시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밖에 우리들이 지적해야만 할것은 민족주의가 흥성할 때 공산주의는 유물주

의 입장을 취하면서 또 이 때에 흥기하여 전력으로 기독교를 배척하였다. 1949년 공산당이 대륙에서 완전히 독세하게 되자 그 통일전선원칙에 따라 당시의 민족주의 물결에 가장 알맞은 어휘를 절취하여 기독교가 「자립, 자전, 자양」을 채택하는 이른바 「삼자애국교회」가 될 것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되자 교회인사는 「三自」를 말하기를 꺼리게 되었고 왕명도는 독자적으로 북경에 처음으로 「진정」한 삼자교회를 설립하였으나 대륙이 사회주의화된 후 오히려 중공대륙의 삼자교회에 의해 수차 숙청, 박해받고 함정에 빠져서 20여 년 간 수감생활을 하였다. 토착화운동이 주장하는 자립, 자전, 자양운동은 중공에 차용되어 가장 유력한 통전의 도구가 되었다. 3자 교회가 조성된 후에는 일반인은 감히 토착화를 말하지 않았는데 토착화를 얘기하면 신신학이거나 중공을 찬성하는 것으로 오해받았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1978년 이후 중공은 삼자애국교회를 개방하여 그것을 통전부산하에 놓게 되자 수많은 곤혹감과 의구심을 야기시켰다.

중국대륙에서의 기독교토착화문제를 꺼낼 때 지하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륙의 가정교회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49년 중공이 대륙을 차지한 후 점차 교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고 수많은 전도인도 감히게 되었으며 외국 선교사들은 중국대륙에서 추방되었고 교회당은 몰수되고 신학원은 폐쇄되었으며 더욱이 문화대혁명기간에는 교회는 극도의 핍박을 당해서 해외인사는 공산당이 교회를 완전히 소멸시켰다고 여기게 되었다. 뜻하지 않게도 1978년에 중국대륙이 다시 개방된 후 이런 가정교회가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점점 지하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 신자의 수가 5천 만을 헤아리게 되리라고는 사실 아무도 생각지 못하던 일이었다. 왜 이런 가정교회가 박해를 거친 후에 이와 같이 급성장을 하게 되었는가? 원인은 실로 아주 여러 가지이나 가정교회가 우연히도 중국사회 구조 및 문화요소에 합했다는 것이 그 주요원인의 하나이다. 이런 집회장소는 물론 자립, 자양, 자전

적인 것이며 또 가정을 거점으로 삼았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부호나 찬송도 아주 토착화, 연관화된 것이고 그들의 경험은 우리의 토착화의 가장 좋은 교재이기도 하다.

70년대말에 「뿌리」찾기운동이 아주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또 역대의 본토화, 토착화운동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쟁론이 매우 심하게 벌어졌다. 그래서 근대 선교신학자들은 이 용어를 버리기 시작했다. 특히 1974년 북음파 인사는 로잔에서 소집된 제1차 세계복음회의에서 일찍이 연관화라는 주제하에 이론 및 신학입장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였고 아울러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유럽, 및 영어권별로 모여서 각기 다른 각도에서 연관화와 성격의 원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따라서 70년대 후 연관화나 맥락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전의 토착화를 대신하려고 하였다. 동시에 70년대 후에 선교학자들은 인류학, 문화학, 사회학, 심리학, 행위과학의 각도에서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 플러신학원은 그 중요한 중심이 되었다. 이 신학원의 교수 중에는 문화학자와 인류학자가 많이 있어서 선교학과를 설치할 때 교회성장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추진하였다. 이 신학원에서는 제3세계의 수많은 목사와 선교사를 이 곳에 초청해 와서 연구하게 하고 교회성장의 이론을 습득하게 하며 동시에 각처의 경험많은 선교사를 초청해다가 한곳에 모아서 각 사람의 경험을 모으고 초문화나 문화이상을 세워 교환하고 학술적으로 정리하여 새로운 선교원칙을 세워서 각지로 보내기를 원했다. 이로 인하여 현재 교회성장과 선교학의 방향을 논할 때 현지 문화와 배합하는 쪽으로 기울었으며 토착화의 개념도 이미 대다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비록 기독교가 중국에서의 토착화과정에서 허다한 논쟁을 일으켰지만 이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며 이러한 논쟁에 의하여 기독교가 더욱 토착화되어 그 신앙이 사람의 속 깊은 마음에 들어가기로 희망해 본다. 

(다음호에 계속)

방한중국교포 선교사역의 중요성

표세홍 목사(양무리교회)

사도행전 2장은 교포선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성경적 근거라 할 수 있다.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당시의 인물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하면 1그룹은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고, 2그룹은 외국에서 태어나 고국을 찾아온 교포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그룹이고, 3그룹은 유대인의 정치 종교 지도자 등 반기독교 그룹이다. 이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었다. 특히 1그룹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므로 성령충만 받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2그룹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사건을 통해서 1차적으로 가서 선교하기 전에 먼저 찾아온 교포 유대인들에게 선교가 먼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교포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는 나라로 돌아가 복음이 급속도로 이방에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행2:5~13, 8:4, 9:2) 근래에 한국교회 안에서는 해외(세계)선교, 공산권(북방)선교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으며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가려고 해도 보내려 해도 갈 수 없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동토의 땅이요 선교의 불모지인 북방 공산국가였다. 그런데 그 곳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등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아직도 기독교의 선교활동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그 예로 중국에 선교활동을 다녀온 예수전도단 홍성건씨는 “본래의 선교 계획대로 활동을 못하고 중국 당국의 감시로 직접적인 전도나 선교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방한중국교포 초청잔치에서 찬양하는 모습)

한편 91년 6월 9일 기독교 연합신문에 의하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인 권호경 목사는 중국교회 지도자들로부터 “한국교회가 중국교회에 많은 헌금을 보냈다고 하나 우리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중국 국경에서 24만 장의 종교 책자나 2,000개의 녹음기 비디오 테이프를 압수당하였고 외국인의 선교를 반정부 활동 또는 종교 활동의 심각한 침투로 중국 정부 내부분서는 밝히고 있을 정도이다. 이상의 몇 가지 예를 보더라도 중국선교는 직접 선교를 할 수가 없는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간접 선교로서 아세아, 극동방송 등 전파선교와 성경, 문서 등으로 선교하는 수밖에 없었으며 미국 선교단체의 방법으로는 경제적으로 중국

정부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이용하여 선교해 왔으나 목사로서는 2달 이상 중국에 머물 수 없었고 특히 한국 목사의 신분으로는 중국 방문도 극히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그 동안의 대북방선교는 소극적이며 간접적이었던 만큼 효과적으로도 극히 미미했다.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한국성도의 45년이 넘는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사 선교의 시급함을 아시고 한국의 훈련받은 선교사가 가지 못하는 중국에 그 곳에 있던 한국인 교포들을 고국에 방문케 하여 복음을 접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인간의 방법과 공산체제를 통한 사탄의 방해 공작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모든 인류가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뿐이다.

그 동안은 어부가 그물과 낚시를 가지고 바다나 강에 가서 고기를 잡는 식이었으나 대규모 중국 교포의 방한은 그물과 낚시를 준비하고 있던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고기(구원 받을 성도)를 모아서 그물에 걸리게 하신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역사상 이념이나 체제가 다른 국가의 교포 방문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89년 한민족 체육대회시에는 국가의 초청과 국가 주도의 행사로 고국을 방문했으나 지금은 자비 부담으로 개인적으로 방문한다. 여러 가지 방문 목적이 다르겠지만 작년(90년도) 말 언론보도로 인하여 저들의 고국 방문은 참으로 비참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주간에 1,000~1,500명이 고국 방문길에 오른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그물에 고기를 밀어 넣어 주시는 것이다. 그냥 방치하여 그물에서 고기가 빠져 나가게 해서는 안된다. 바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사명이요 여기에 교포 사역의 중요성을 한 가지씩 열거해 보기로 한다

1. 교포선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므로 중요하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과거나 오늘날이나 미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섭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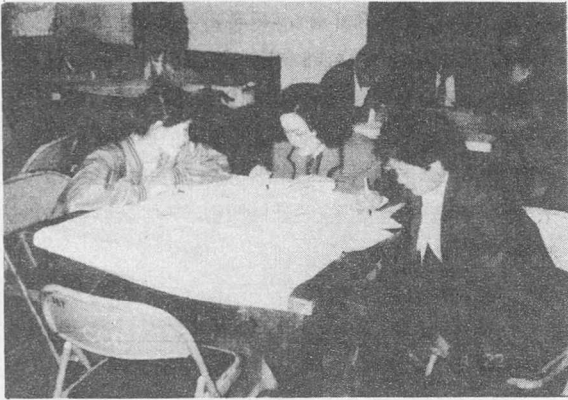
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중국 땅에서는 기독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관심 밖에 있었던 그들이 한국에 보내어짐으로써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듣고 또한 한국교회를 보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바로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롬 9:1~3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동족의 구원과 그들의 영혼을 위한 간절한 소원을 찾을 수 있다. 중국교포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다. 조선말 우리의 옛 영토였던 그 곳을 개간하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 갔거나 일제시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또는 독립 운동을 위해 만주 동지에서 고생하던 애국지사들 즉 우리 선조들의 후예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세상에서 실망하고 좌절한 그들을 예수 안에서 희망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이므로 교포 사역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1976년 이산가족의 재회 차원에서 모국 방문이 시작되고 1986년을 고비로 많은 교포들이 고국을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방한 교포들의 현실은 참으로 「고국 방문을 후회」하면서 77% 이상이 경비마련을 위해 불법 체류, 취업 등으로 어려운 고국 생활을 보내고 있다. 저들은 일제의 압박시대에 잃어버린 우리의 핏줄이 아닌가? 이제 저들은 우리가 돌보아야 한다. 망향의 한을 갖고 고국을 방문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겪고 있는 설움과 괴로움, 고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어야 한다. 여기에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교포사역은 일생 일회의 기회이기에 중요하다.

미영준 박사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교포들의 고국 방문은 45~50년 만의 태어나서 한 번뿐일 수밖에 없는 단 1회의 기회라고 한다. 방한 교



(경신서를 쓰고 있는 교포들)

포나 전도자 상호간에 일생 일회의 기회라고 생각할 때 결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다. 2~3대에 걸쳐서 중국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고국 방문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한 번 방문하고자 할 때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다시 나오고 싶어도 2년의 제재 기간이 있다고 한다. 또한 모국 방문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자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만났을 때 복음 전도의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미루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4. 한국교회가 복음의 빛을 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중요하다.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인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이제는 복음을 수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선교 100년의 역사 속에 우리는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악 속에서 우상숭배와 허탄한 것을 쫓아가며 절망과 무지로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 큰 복음의 빛진 자들로서 이제는 복음을 수출하는 한국교회들이 선교지를 찾아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포들을

보내 주심으로 찾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복음의 빛을 갠게 해 주신 것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성경을 받았고 중국성경이 번역되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이 빛을 갠아야 한다.

5. 선교의 효과가 크게 기대되기에 중요하다.

중국은 제도적으로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할 수 없는, 선교활동이 보장되지 못한 나라이다. 또한 선교사가 가려면 언어문제, 문화적 갈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가야한다. 그러나 고국을 찾아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기쁨의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할 때에 가서 전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이중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우리 말로 언어가 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언어훈련을 쌓지 않아도 사역이 가능하다. 더구나 그들은 중국에 가서 중국말로 중국인에게도 복음을 전파 할 수 있으니 이중효과가 주어지는 것이다.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선교할 수 있으니 좋고, 언어가 통하니 별도의 언어훈련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것이다. 또한 한약재가 가짜라는 언론의 보도는 교포들에게 심한 타격과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겠는가? 만일 약이 잘 팔리고 물질이 넉넉해져서 마음껏 관광도 하고 부자가 되어 돌아갈 수 있었다면 한국교회는 그들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국가가 그들을 책임지고 돌봐 주었다면 더더구나 교회에는 관심 밖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뜻이요 섭리라 아니할 수 없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중에서 만난 하나님은 더욱 감사하고 귀중하기 때문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큰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자.

6.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일이기에 중요하다.

중국교포들이 방한 중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귀한 사명을 갖고 있다. 찾아온 교포들에게 무관심한 한국교회가 북방선교를 한다고 준비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자신을 속이는 일인가? 보이는 형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사랑 할 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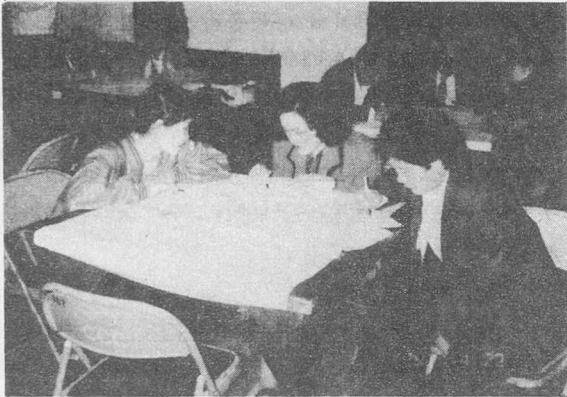
그들 중에서 북한에 친척이나 형제가 있어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그 수가 서로 합하면 일 년이면 십만 명 정도이다. 기하 급수적인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복음의 확산 속도는 빠르고 넓을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서로의 체제만을 앞세운다면 통일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서로 상대방 체제의 단점만을 꼬집으며 비판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제적 우위로 나만이 주도하여 통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망상이다. 어느 중국교포의 말을 빌리면 만일 남한이 돈이 많아서 어떻게 통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북한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들이 남한 사람의 종이 되기 싫어서 통일을 반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경제적 우위가 결코 통일을 앞당길 수 없음을 실감나게 해 주는 말이다. 결국은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곳이 바로 만주 땅, 중국 교포들이다. 북한 주민은 남한 땅에 직접 올 수가 없고 더구나 남한 사람은 만날 기회가 적다. 다만 그들 북한 주민은 중국에 갈 수는 있기 때문에 중국교포가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체험한 남한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도 중국교포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중국교포들의 입을 통해 북한에 남한이 인식되며 통일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 교포의 남한 방문은 통일 후 남북한 왕래의 예행연습이 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동·서독간의

통일을 가져온 가장 큰 배경은 바로 교인들의 기도라고 한다. 마이저레 동독총리는 고별 연설에서 “동독의 자유를 위해 월요기도회를 이끌어 온 동독의 개신교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교포를 통한 북한 선교에 의해 북한에서 드리는 기도소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독일처럼 통일시켜 주실 줄 확신하게 된다.

7. 교포선교는 선교지의 인적자원의 확보라는 면에서 중요하다.

저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되면 그들이 돌아갔을 때 자비량 선교사가 확보되는 셈이 된다. 더구나 훈련까지 받고 가게 된다면 중국교회 지도자로서도 사역하게 되니 선교의 인적자원이 풍부해지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교포사역의 동참이 절실히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귀한 사명을 갖고 있다. 찾아온 교포들에게 무관심한 한국교회가 북방선교를 한다고 준비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자신을 속이는 일인가? 보이는 형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사랑 할 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 오늘날 각 교회에 선교의 불길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선교사를 훈련시켜 각 선교지에 파송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순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강도 만나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 내 형제 중국교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자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핑계로 무관심하거나 못 본 척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지금 여행중일지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복음 전도가 시급한 곳에 우리의 눈을 먼저 돌리자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 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경신서를 쓰고 있는 교포들)

포나 전도자 상호간에 일생 일회의 기회라고 생각할 때 결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다. 2~3대에 걸쳐서 중국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고국 방문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한 번 방문하고자 할 때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다시 나오고 싶어도 2년의 제재 기간이 있다고 한다. 또한 모국 방문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자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만났을 때 복음 전도의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미루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4. 한국교회가 복음의 빛을 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중요하다.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인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이제는 복음을 수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선교 100년의 역사 속에 우리는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악 속에서 우상숭배와 허탄한 것을 쫓아가며 절망과 무지로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 큰 복음의 빛진 자들로서 이제는 복음을 수출하는 한국교회들이 선교지를 찾아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포들을

보내 주심으로 찾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복음의 빛을 갠게 해 주신 것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성경을 받았고 중국성경이 번역되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이 빛을 갠아야 한다.

5. 선교의 효과가 크게 기대되기에 중요하다.

중국은 제도적으로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할 수 없는, 선교활동이 보장되지 못한 나라이다. 또한 선교사가 가려면 언어문제, 문화적 갈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가야한다. 그러나 고국을 찾아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기쁨의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할 때에 가서 전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이중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우리 말로 언어가 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언어훈련을 쌓지 않아도 사역이 가능하다. 더구나 그들은 중국에 가서 중국말로 중국인에게도 복음을 전파 할 수 있으니 이중효과가 주어지는 것이다.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선교할 수 있으니 좋고, 언어가 통하니 별도의 언어훈련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것이다. 또한 한약재가 가짜라는 언론의 보도는 교포들에게 심한 타격과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겠는가? 만일 약이 잘 팔리고 물질이 넉넉해져서 마음껏 관광도 하고 부자가 되어 돌아갈 수 있었다면 한국교회는 그들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국가가 그들을 책임지고 돌봐 주었다더라면 더더구나 교회에는 관심 밖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뜻이요 섭리라 아니할 수 없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중에서 만난 하나님은 더욱 감사하고 귀중하기 때문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큰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자.

6.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일이기에 중요하다.

중국교포들이 방한 중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귀한 사명을 갖고 있다. 찾아온 교포들에게 무관심한 한국교회가 북방선교를 한다고 준비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자신을 속이는 일인가? 보이는 형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사랑 할 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

그들 중에서 북한에 친척이나 형제가 있어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그 수가 서로 합하면 일 년이면 십만 명 정도이다. 기하 급수적인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복음의 확산 속도는 빠르고 넓을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서로의 체제만을 앞세운다면 통일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서로 상대방 체제의 단점만을 꼬집으며 비판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제적 우위로 나만이 주도하여 통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망상이다. 어느 중국교포의 말을 빌리면 만일 남한이 돈이 많아서 어떻게 통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북한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들이 남한 사람의 종이 되기 싫어서 통일을 반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경제적 우위가 결코 통일을 앞당길 수 없음을 실감나게 해 주는 말이다. 결국은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곳이 바로 만주 땅, 중국 교포들이다. 북한 주민은 남한 땅에 직접 올 수가 없고 더구나 남한 사람은 만날 기회가 적다. 다만 그들 북한 주민은 중국에 갈 수는 있기 때문에 중국교포가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체험한 남한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도 중국교포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중국교포들의 입을 통해 북한에 남한이 인식되며 통일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 교포의 남한 방문은 통일 후 남북한 왕래의 예행연습이 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동·서독간의

통일을 가져온 가장 큰 배경은 바로 교인들의 기도라고 한다. 마이저레 동독총리는 고별 연설에서 “동독의 자유를 위해 월요기도회를 이끌어 온 동독의 개신교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교포를 통한 북한 선교에 의해 북한에서 드리는 기도소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독일처럼 통일시켜 주실 줄 확신하게 된다.

7. 교포선교는 선교지의 인적자원의 확보라는 면에서 중요하다.

저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되면 그들이 돌아갔을 때 자비량 선교사가 확보되는 셈이 된다. 더구나 훈련까지 받고 가게 된다면 중국교회 지도자로서도 사역하게 되니 선교의 인적자원이 풍부해지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교포사역의 동참이 절실히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귀한 사명을 갖고 있다. 찾아온 교포들에게 무관심한 한국교회가 북방선교를 한다고 준비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자신을 속이는 일인가? 보이는 형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사랑 할 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 오늘날 각 교회에 선교의 불길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선교사를 훈련시켜 각 선교지에 파송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순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강도 만나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 내 형제 중국교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자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핑계로 무관심하거나 못 본 척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지금 여행중일지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복음 전도가 시급한 곳에 우리의 눈을 먼저 돌리자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 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강철민 (방한중국교포선교 협의회 총무)

십여 차례 방한 중국교포들을 위한 월요전도집회를 계속해오면서 늘 마음 한 구석에는 '이게 아닌데' 하는 아쉬움이 남곤 하였다.

한 주일에 한 번씩 저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것도 매번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몹시도 착잡했다. 오! 하나님 교포형제들이 그 깊은 사상적 어두움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려드리고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포형제들 한사람 한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앞에 고꾸라져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오열하며 감격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사역을 진행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이러한 성령의 탄식을 들려 주셨으며 그 탄식을 따라 기도하게 하셨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수박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모습)

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6일 동안의 온누리교회 신앙수련회를 허락하셨다.

이 수련회를 하기로 진작 결정한 후에는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참석할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6일 동안 계속되는 집회인데 하는 걱정이 우리들 마음 속에 깊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한 형제들은 주위 형제들에게 연쇄금식기도를 부탁하고 대외적인 홍보전략

을 세웠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2주간에 걸친 형제, 자매들의 신실한 금식기도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이 준비된 많은 사람들을 보내준 것이었다. 우리가 금식하며 이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사실을 알고서 양육을 받고 있던 교포들이 그들의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었던 것이 우리를 몹시 감격하게 했

다.

월요일 아침 전도집회를 마치고 모인 사람들에게 수련회 참석을 강력히 권유했다. 머뭇거리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60여 명의 사람들이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0명이라도 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60명이라니. 이제 6일 동안의 땀과 빼앗기는 사탄과의 영적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수련회의 처음시간은 윤형주 집사의 찬양 및 간증집회로 시작되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다. 뒤이은 목사님의 말씀증거 그 이후에 30여 명의 신앙상담요원들이 동원되어 교포들과 신앙상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이라 서로간의 살아온 날을 돌아보며 그간의 회포를 나누었다. 벌써 눈가에는 새벽 이슬 같은 고운 눈물들이 송송히 맺혀있고 얼굴들은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잠을 자는동안은 주의 공전에서의 첫날 밤이 천년의 세월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교포들이 방문을 열어놓고 자유분방하게 내 집 안방처럼 여유있게 주무시는 모습이 가끔씩 우리를 당황하게 했다. 확실히

중국사람들은 그 색깔부터 잡자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원색적이다. 둘째날은 새벽기도회로부터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전, 오후로 이어져 5차례 계속된 창조론 강의는 그들에게 많은 도전을 준 것 같았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한국에서 내노라하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는 박사님들이 자신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의 충격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노인들과 할 일 없는 사람들만 교회에 다니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 중 교회에 다니는 것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녁시간에 성도님들이 찬양과 경배 홍보용 노란 티셔츠를 하나씩 주셨다. 그 셋노란 티셔츠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였으며 꼭 한 폐의 노란 병아리들을 모아 놓은 것 같았다. 수요일예배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다. 교포들은 다소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으나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

예배가 끝날 때 쯤 되어서 목사님께서 몇몇 형제들을 위한 중보기도제목을 나누며 모든성도들이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

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었지만 중국교포들에게 이 사실이 몹시도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다. 지금까지 죽의 장막 속에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다른 이를 항상 경계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러한 조그만 사랑과 헌신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그렇다 사랑은 사소한 관심에서 출발하며 사랑은 항상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새벽부터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시내 관광을 하는 날이라 소풍가는 들뜬 아이들처럼 야단들이었다. 관광할 때 질서를 위해서 노란 병아리 팀복을 입고 간다고 하니 자매님들이 다소 실망한 듯한 눈초리였다 나름대로 멋을 내고 싶었기에. 입에 연신 침을 바르면서 노란 팀복을 입은 자매님들의 모습이 너무 이쁘고 귀엽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더니 칭찬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경복궁, 극동방송국, 우리들은 그곳에서 P.D의 요청에 의해 즉흥적으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사이에 죽의 장막으로 가리워 있을 때 서로 소식을 전하

고 복음을 듣도록 했던 그 귀한 방송국입니다. 방송국의 극진한 대접을 뒤로 한 채로 63빌딩으로 향했다. 88올림픽 주경기장과 교육관을 두루 둘러보고 마지막 순서인 올림픽 체조경기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 우리는 88년 그 가을 올림픽 선수들처럼 영생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목요찬양과 경배의 시간이었다. 교포들이 이러한 모임을 잘 적응해 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인도자와 모여있는 형제들의 열렬한 환영과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 모임전체가 중국 교포들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교포들을 환영하고 사랑해 주셨다. 찬양시간 중에 중국 교포 한사람, 한사람을 부여잡고 눈물이 뒤통까지 되어 뜨겁게 중보기도 하는 시간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가졌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렇게도 다들 열광하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겁니까?” 몇몇 형제들이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 비로소 자기들의 마음 속에 예수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초록의 대지위로 축축히 비가 내리며 버스는 그 속으로 달려갔다.

마지막 날이다. 그 힘들고 지루한(?) 강의들을 잘 견뎌내며 교포들이 참석해 주었다. 강의 시간 중 1/3가량은 천국을 오락가락(?) 하고 계셨지만 헤어질 날이 가까워 오자 그 아픔으로 인해 섬기는 자의 정성은 더욱 더해갔고 교포들도 정신을 차려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했다. 수련회 순서내내 빙빙 겉으로만 돌던 형제들이 점점 열의를 보이기 시작했다. 점심식사 후 장재운 집사님의 인도로 교포들의 간증 및 찬양시간이 3시간 가량 계속되었다. 15명 정도가 수련회에 참석한 간증을 하셨는데 참으로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가장 많이 애를 태우던 할아버님이 이곳에서 배풀어준 성도들의 진실한 사랑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된 이야기를 하셨다. 30~40년의 분단을 현실을 넘어서 그리던 이 모국에 왔지만 그들을 형제처럼 진실되게 반갑게 맞이해준 사람은 친척도 아니고 바로 예수 믿는 형제들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지 몰랐다고 이야기 하셨다.

수련회가 끝나자 교포형제들이 자신의 주머니들을 털어서 사랑을 기념하고 싶다면서 記章을 하나 선물하셨다.

우리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30여 명 이상의 교포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한국에 있는 동안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고 하셨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일하셨으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의 닫혀진 문을 열어 달라고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해 왔다. 이제 그 열려진 문을 통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방한 중국교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자 우리는 이러한 방한 중국교포들을 위한 전도집회와 신앙수련회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이들이 돈을 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예수 생명을 얻어 갈 수 있도록 하자.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강하게 뇌리를 때린다. 통일, 통일 그렇게 외치고 갈망하면서 중국에서 온 이 2만여 명의 동포들에게조차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통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5:17)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추수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여 드리자. 

방한중국교포의 간증

고마워라 임마누엘!

서진현

다시 여는 인생의 새벽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른 새벽 주위는 쥐죽은 듯
고요한데 다만 반짝이는 못별이
새날의 여명을 반기고 있었다.
나는 초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S교회 앞문에 깊이 뿌리
내린 백일홍 꽃나무 밑에서 여
명천야의 어둠을 헤치고 거룩히
치솟은 십자가를 우러러 보고
있었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바로 이 거룩한 십자가가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였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영혼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S교회에 온 후 나는 매
일 새벽 3시반에 잠이 깨는 것
이 이상했다. 그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에서 알지 못할 그
어떤 신비로운 힘이 나로 하여
금 새벽1,2부 기도, 수요일 저
녁 성경공부, 금요일 철야기도,
주일새벽1,2 기도와 주일 낮예
배 1,2,3부, 주일 저녁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여
자세히 기록할 수 있게까지 했
다.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의
설교는 마치 천천히 흐르는 실
로암의 물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물결이 되어 마음 속에
단물같이 흘러들었다. 그리하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
었고 먼저, 믿음은 우리에게 말
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았으며
하나님을 힘써 알고 깊이 알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
를 깨달을 수 있었다.

곤경에서 부르짖던 이름--- 하나님

1973년 초가을 내가 중국의 X
X병원에 입원 했을 때 남편
은 북경에간 지 반 년이 넘었다.
나는 “좌골신경류” 라는 병으로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류”는
악성, 양성이 있는데 일반적으
로 빨리 수술하는 것이 상책이
었다. 수술하던 날 아침에 나는
남편보다도 불쌍한 아이들이 보
고 싶어 뼈가 무너지는 듯한 그
리움에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
다. 나는 가족의 싸인도 없는
수술대에서 보잘것없는(?) 내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의사에게
맡길 때 사랑하시는 나의 어머
니의 모습이 생각이 났다. 내
가 어렸을 때 중병에 걸려 사
망선에서 몸부림친 적이 있는데

그 때 어머니는 전심으로 하나
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셨다.
어머니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옵소서”라
고 부르짖었다. 그 때로부터 몇
년이 흘렀던가...

□□□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본 전문가 ○○○의 통역을
선 나는 머리가 몹시 아프고 눈
앞이 핑그르 도는 듯한 느낌이
들어 퇴근하자마자 지친 몸으
로 택아소에 가니 보모가 내 들
째 애를 안고 내가 오기만 고대
하고 있었다. 급히 아이를 받아
안고 보니 아이의 온 몸이 불덩
어리 같았다. 나는 급히 병원으
로 달려갔다. 진단결과 급성 병
독성감기라 하면서 입원하라고
했다. 현장일을 고려하여 아침
저녁으로 주사를 맞히기로 하고
집으로 왔다. 남편은 출장가고
그 날따라 비가 억수로 쏟아졌
다. 천지를 진동하는 우뢰소리
에다 번개까지 번쩍거리니 무서
움에 질린 나는 부지중에 “上帝
保護我們母子吧”(하나님이시여
우리 모자를 보호해 주시옵소
서) 하고 부르짖었다. 그 날 밤
은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뿐

몇 년이 지나 문화대혁명의 폭풍우가 사라진 후 나는 중국 민항에 몸을 싣고 기술교류대표단의 통역으로 일본에 갔다. 중국에서 가장 큰 화학공업 회사 외무부 일어 통역원으로 근무해 오던 나는 십여 만 직원들 중에서 처음으로 출국하니 그 기쁨과 영광은 쓰라린 옛날의 지워지지 않는 피눈물의 흔적조차도 잊을 수 있을 정도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을 안겨다 주었다. 나는 너무 기뻐 나도 모르게 마음 속으로 “上帝啊感謝您”(하나님 감사합니다)하고 부르짖었다. 그 후에도 고급대표단의 통역으로 일본에 자주 갔고 또 J성의 省長, 市長, 會社社長, 일본에서 온 회사사장 유명한 박사들의 통역을 썼다. 아마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는 최고의 “영광”이었으리라. 또 몇 년이 지난 후 서울의 S교회에 오게 되고 담임목사님이신 L목사님과 O목사님 그리고 여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1).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옛날의 그 모든 영광이 헛되다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 땀땀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에만 치중했던 나 자신이 한없이 가소롭게 여

겨졌고 그것이 “영광”으로 느껴오던 역사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분토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남북한 땅을 합한 것만큼 큰 J省 省長의 통역을 썼을 때 나를 그토록 칭찬해 주던 그 영광도 시시하게 여겨졌고 통역을 해주었던 省長, 市長, 博士, 社長 등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들이 한없이 불품없는 인간으로 여겨졌다. 예전에 높게 보이던 것이 지금은 낮게 보여진 것이다. 그러나 그 시시한 무더기 속에서도 빛을 발사하는 그 무엇이 나의 눈을 황홀하게 했다. 이 땅의 암흑을 헤치고 서서히 치솟는 주님의 십자가, 내 눈 앞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이 채찍에 맞아 살이 터졌으며 창칼에 찔려 피를 흘리시는 주님의 형상이 떠올라 눈물이 비오듯 했다. 나는 목이 메이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에 부지중에 “주여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다.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생각하니 내가 서울의 S교회에 온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7월 24일 출국할 날짜가 정해진 때 돌아가느냐 아니면 남아서 성경말씀을 듣고 배우느냐? 하는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못한 채 이 곳에

왔던 것이다.

그나마 이곳 무역회사를 통하여 나는 둘째 아들이 아파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장이라고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불갈았다. 남편과 자식에 대한 그리움의 나날속에서도 고마우신 하나님은 나를 성전으로 부르셨다. 이방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생각했다. 아침금식기도를 하면서 나도 주님께 매달렸다. 기도 중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식을 원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은 사랑의 채찍이되어 나를 후려했다. 뒤이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마 11:29-30).”라는 말씀이 들려왔다. 그 날 담임 목사님께서 “무화가 나무 아래 편히 앉아 쉬리라”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배워야 하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배우고 고난중에서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순간 내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겼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 속에 평강이 가득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소식을 자신의 것인양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쳤을 때 밀려오는 것은 불안과 공포였다. 이것은 내가 말로만 주님을 믿고 마음은 주님을 떠난 데서 오는 악령이라고 생각하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패하든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시다. 남아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의 체류기간을 연기시켜 주시옵소서”하고 기도했다. 나는 마음의 평정을 느꼈고 주님이 늘 나를 살피주시는 느낌 속에서 기도에 열중했다.

인간은 나를 외면하여도 주님은 언제나 나를 외면 하지 않았고 나를 버리지 않았으며 내 곁을 떠나시지도 않았다. 8월 13일 한국 법무부에서는 나에게 한국에 머무르는 거류신고증을 발급했는데 체류기간은 10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 더 연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다. 나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느꼈고 너무도 고마워서 “주여 이 죄인이 무엇 이온데 이처럼 사랑하시나이까?” 하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아, 자유 신앙의 자유!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외무부이자 무역회사여서 교회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성경 찬송가도 금지되어 있었다. 부자유 의 쇠사슬에 움작달작 못하게 만들어진 역경 속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먼저 출근하여 아침시간 25분 정도 성경책을 읽을 수 있었고 찬송가도 부를 수 있었다. 평시에는 남의 눈을 피해가면서 성경을 읽다가 남이 오면 다른 책을 위에 가리우던 그 시절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게 교회에 나갈 수 있고 자유롭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찬송가를 높이 부를 수 있는 한국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던가.

한편 내가 중국에 돌아가면 어떤 역경에 부딪칠지도 모른다.

약 120만 인구를 가진 J시에 한국교포들이 들성들성 섞여사는 곳에 “○○교회”라는 교회가 성립된 지 불과 몇 년이 안된다. 목사님 장로님이 없고 연세 많은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오다가 정부의 허가를 맡아 교회를 설립하여 약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웠다. 주일이면 근교농촌에서, 많이 오는 날에는 약 2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로 온다. 결국 절반은 교회문 밖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때로는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셨다. 하

이사야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는 주의 물음에 “여기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한 선지자 이사야의 정신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응답하리라.

지만 개인적으로 접촉을 못하게 규정되어 있고 설교도 못하게 규정 되어 있어 성도들이 흐느끼고 대성통곡한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아, 자유, 신앙의 자유가 그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나는 전한국의 성도들에게 외치고 싶다.

이렇게 따르리라

주님은 내가 단순히 성경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나도 힘써 일하는 성도가 되련다. 이사야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는 주의 물음에 “여기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한 선지자 이사야의 정신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응답하리라.

동녘이 점점 밝아 온다. 새벽 기도실로 발길을 돌린 나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 속으로 부르짖었다. 고마워라 주님의 십자가여, 고마워라 임마누엘! 

탐방 갈릴리 선교회를 찾아서

발로 뛰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회

중국교포들이 국내로 밀려 오기 시작한 작년 연말 이래,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며 전도와 양육을 계속하고 있는 선교회가 있다. 후암동에 한 건물을 빌려 사무실과 합숙기거 할 수 있는 방을 갖추고 대표인 김범곤 전도사님과 1명의 자매를 비롯한 6명의 간사가 전일제로, 60여 명의 다양한 회원이 헌신하고 있는 갈릴리선교회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본래 이 선교회는 84년에 창립되었는데, 주로 서울역 주변이나 전철 구내, 혹은 명동거리 등을 무대로, 노방전도를 맹렬하게 펼쳐왔다고 한다. 이 선교회의 대표이신 김범곤 전도사님이 밝힌 바에 의하면 그야말로 '전도'하는 사람들의 초교파적 모임이라고 한다. 중국교포들과의 인연은 사실상 우연이 아닌 기도의 결과라고 한다. 88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90년 아시안게임 때에는 중국에 응원단 파견을 통해 중국선교를 하려던 구상이 실천 단계에서 여러 제약으로 무산되기도 했으나 끊임없는 기도와 최근중국방문 등 선교의 경험을 쌓으므로 중국선교의 비전을 넓혀 왔다는 것이다. 특히 연변, 길림 등 만주지역의 한인 중국교포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한약재 등을 가지고 밀려 오던 지난 연말 부터 오고갈 데 없이 추위에 떨며 점심까지 굶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점심과 옷 등을 제공하며 전도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발 벗고 나선 교회는 거의 없는 실정에서 이들의 행동은 예언자적 경종을 교회들에게 주었다 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놀라운 일은 이런 전도 활동이 '매일'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었다. 대화 중에 김범곤 전도사님이 지



(중국교포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

적한 대로 일반교회나 단체들의 '1회성' 집회나 활동으로 이런 지속적 선교활동이 지장을 받고 있다는 말씀은 한편으로 의아스러우면서도 동감이 가는 부분이었다. 전도 후의 양육을 전제하지 않는 활동은 교포들에게 이런 지속적인 양육참가를 꺼리게 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갈릴리선교회의 중국교포상대의 전도와 양육사역은 나름대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아침 새벽예배와 전도를 겸한 집회를 남산에서 시작한다. 물론 이 때는 계속 남아 단기신학과정까지 거치는 중국교포들이 참여하여 일종의 부흥회를 연상시킬 정도로 힘찬 찬송과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돌아와 30분정도의 QT시간을 가지고 아침시간을 끝낸 후 중국교포밀집지대로 가 전도를 하고 여기서 모인 교포들을 모아 매일 점심을 대접하고 예배를 드리며 더 시

간을 낼 수 있는 교포들을 위하여 성경에 관한 비디오 간중테이프 등을 통해 신앙적 간접경험을 갖도록 돕는다. 또 이렇게 모인 교포들을 정도에 따라 신입반 등 신급별 성경공부도 실시한다. 이 선교회에서 특히 중점을 두는 사역은 교포지도자 양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원자들을 위해 야간 단기 신학교(현재는 갈릴리신학교의 협력을 받음)교육을 시키고 실질적인 영성훈련, 즉 힘써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수 있는 훈련을 위하여 가급적 현장체험이라는 산교육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즉 기도원에서 기도훈련, 산기도 훈련, 수련회나 여름성경학교 참여 등등 동원 가능한 여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교포선교의 어려움을 묻는 기자에게 김범곤 전도사님은 중국교포들이 전도받을 때 비록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일이 아닌 다른 문제 때문일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심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도와 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국교포 선교에 있어서 교포들이 양육받는 내용이나 진행과정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이 끌어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강의하고 주입시키기 보다는 '영적 분위기'속에서 그들을 참여시키고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일이 물론 어려운 일이나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강조한다. 작은 예이지만 찬송도 울동을 곁들인 복음성가를 활용한다면 훨씬 참여 열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로 중국교포들에 대한 전도나 양육은 숫적으로 초기와 달리 줄어드는 실정이나 (예컨대 초기에는 70-80명 이던 것이 20-30명 정도) 이들에 대한 전도열정은 오히려 식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전도 사역을 위해 경상도에 가족을 남긴 채 본의 아닌 이산가족이 되버린 김범곤 전도사님의 전도의 열정과 헌신이 갈릴리 선교회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 선교회의 귀중한 경험이 중국선교에 있어 여러 교회와 단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았다. ◆

■ 특집/방한중국교포 선교

▶ 탐방 / 한봉덕 집사를 찾아서

전도하는 재미로 사는분

방한 중국교포를 위해 지금까지 사재까지 털어가며 몸을 아끼지 않고 전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 해서 취재팀이 찾아가 만난 분은 올해 67세로 나이답지 않게 젊음이 넘치는 한봉덕 집사님이다. 동대문 소재 동신교회의 안수집사로 시무하면서 본인이 밝힌바에 의하면 이제껏 방한 중국교포의 절반 정도는 자기 얼굴을 봤으리라 할 정도로 대단히 의욕적으로 또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다. 주님을 영접한 것은 17년전 어쉴픈

신앙으로 타락의 길을 걷다 술 때문에 정신이 돌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님을 통해 건짐을 받고 남은 인생을 덤으로 알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 후 14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 사재를 털어 무료로 선교영화를 상영해 주고 전도하는 생활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고 하며 지금도 주일 오후면 교회 청년들의 찬양조, 간증조와 더불어 매주마다 개척교회 전도집회를 지원한다고 한다. 방한 중국교포를 선교하게 된



(동신교회 전경)

데는 재미있는 동기가 있다. 원래 동신교회에는 해외선교부가 있고 그 안에는 과거 만주 심양 서탑교회 출신 등 중국과 관계된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한 집사님도 13살 때는 만주에 8개월 간 생활하신 적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동신교회의 여러 집사님 목사님과 아시안 계임을 계기로 같이 중국에 들어가게 된 한 집사님은 전도지 등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들어가 전도활동을 폈으나 여러 제약으로 준비한 전도지를 다 사용치 못하고 남겨 오게 되었다. 그러던 중 90년 가을이후 입국하기 시작한 교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고 그 남겨온 전도지를 사용해서 전도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 집사님은 자신이 섬기는 동신교회와 협력하여 전도활동을 펴는데 매일 파고다공원이나 서울역, 정릉, 사당역 등 중국교포가 모여 장사 하는 곳마다 찾아가 전도하면서 주일날 동신교회로 나오도록 초청한다. 이 때 집사님의 말을 빌리면 무언가 준다고 해야 호응이 있지 맨입으론 힘들다는 것이다. 일단 선물을 준다 하면 순식간에 자기 주위로 사람이 몰려오게 되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선물(손목시계, 보자기, 거울, 수첩 등에 성귀를 넣은 것)을 주면서 이 때를 이용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주일날 동신교회로 나오도록 전도 한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전도한 교포들이 매주 25-35명씩 동신

교회로 나오고 있다. 교회에서는 이분들을 정성껏 영접하면서 교회생활을 소개하고 예배에 참석케 한 후 점심을 대접하고 성경책 등을 선물하게 되는데 특별히 한 집사님 개인적으로도 시계를 선물한다고 한다. 때로는 원하는 중국교포 가정 을 자기 집에 기숙시키기도 하고 한약을 파는 것을 돕는 등 자기의 재물을 아까와 하지 않고 전도에 힘을 쏟으시는데 건물에서 나오는 세로도 충당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심을 체험한다고 강조한다.

또 한 집사님이 회원으로 있는 비선교단체로서 봉사단체인 '사랑의 봉사단'의 회비와 또 여러 교회들의 후원으로 매주 1회씩 원하는 중국교포들에게 관광여행을 시키는 데, 이 때 동승하신 목사님들을 통해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는다. 한 집사님은 이 좋은 예수님을 안 전할 수 없어 전하고 있으며 때론 여러가지 오해와 핍박도 만나게 되지만 언제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미루지 않고 전하기를 힘쓴다고 한다. 아무튼 그는 정말 전도를 생활화하는 분이라고 느꼈다. 앞으로 또 침술을 배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리라는 계획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도무지 나이를 느낄 수 없는 동력을 느끼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채찍질할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돌아올 수 있었다. ◆

(정리/박혜영 집사)



국부(孫中山)와 평생 사제간의 정을 나누었던 훌륭한 장로



구봉지(1847-1914)

廣東省 順德縣 出生

구봉지 장로는 런던회 초기에 재직했던 훌륭한 장로로 국부 손중산 선생과 두터운 관계를 맺었던 인물이다.

그는 청말 중화민국초에 홍콩, 광주 등지의 교회에서 런던회를 섬겼는데 그 공헌이 매우 컸다. 구봉지 장로는 본명이 봉시(逢時)이고, 字는 석동(錫桐)이며, 봉지(鳳輝)는 그의 호로 색수(穢叟)라고도 한다. 광동성 순덕현(廣東省 順德縣)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했으며 책임기를 좋아해서 성년이 되기 전에 이미 많은 책을 읽은 까닭에 지식이 매우 해박하였다. 품성이 악을 미워했고 성품이 정직하고 곧아서 불의를 미워했다.

구봉지 장로는 말재주가 뛰어났고 진리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든지 미워하든지 개의치 않았다. 그가 기독교를 믿게 된 것은 런던회 목사의 중재를 받았기 때문이었고 그 이후 런던회에서 봉사하면서 일평생 충심으로 교회와 신도를 섬겼다.

런던회(London Mission Society)는 개신교 중에서 맨처음으로 선교사를 중국에 파견하여 복음을 전한 선교단체인데 馬理遜(Robert Morrison)이 嘉慶 12년(1802)에 처음으로 광주에 도착하여 선교를 하였고 그 후에 이어서 有米憐(William Milne) 목사가 왔다. 당시 청나라 정부는 매우 보수적이고, 배타적이어서 외국상인과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에 대하여 각종의 제한을 가해 런던회가 중국에서 빠른속도로 선교를 전개시킬 수 없게 했다. 그래서 남양의 말래카

(Malacca)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이처럼 넓은 선교지역을 가진 중국이 일단 문호를 개방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많은 선교사를 필요로 할 것이며, 선교사를 선발하는 데는 중국인이나 외국인이 모두 될 수는 있으나 중국인이 임무를 맡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중국선교 인재를 교육하고 예비하기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일을 하였는데 嘉慶 23년(1818)에 말라카 지방에 英華書院(Anglo-chinese college)을 세워 중국청년전도 인재를 양성한 것이었다.

본적이 남해(南海)인 何福堂 목사는 何進善이라고도 불렀는데 係堂 땅 화교로서 英華書院에 진학하였다. 당시 영·중 아편전쟁이 끝나면서 청나라 조정에서는 홍콩을 영국에 분할하고 또 5개 항구를 개방하여 개항장을 두게 되었다. 또한 복음의 문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어 런던회는 선교중심을 홍콩으로 옮기게 되었고, 英華書院도 홍콩으로 옮겨오게 되어 理雅各(James Legge) 목사의 주관하에 업무가 나날이 발전하였다. 何福堂 목사는 졸업한 후에 그를 따라서 홍콩에 오게 되었는데 道光 26년(1846)에 정식으로 런던회 목사로 안수를 받고 홍콩, 광주 등지에서 선교하였다. 同治 2년(1863)에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홍콩에 만자당(灣仔堂)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런던회는 홍콩의 발전에 있어서 견고한 기초를 마련한 후에 곧 중국대륙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同治 3년(1864)에는 佛山지구에 선교를 하였다. 何福堂 목사가 명령을 받고 이곳에 오기 전에 구봉지 장로는 이미 그 곳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에는 그를 깨우쳐 마음속의 의심을 해결해 줄 만한 인재가 없었다. 何 목사가 온 후 구봉지와 교제가 있었고 구봉지 장로는 何 목사가 저술한

신약전서 주역을 읽은 후에 크게 감명을 받아 이로부터 성경에서 진리의 깊은 뜻을 찾는 것을 즐겁게 여기게 되었고 진리를 믿는 마음도 더욱 돈독하여졌다. 그는 마침내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런던회 성도가 되었다. 그는 말하자면 佛山지구 런던회가 맺은 최초의 결실이였다. 그는 침례를 받은 후에 전 가족을 인도하여 기독교를 믿게 하였다. 동치 4년(1865)에 불산예배당이 낙성식(落成式)을 거행하게 되어 구봉지 장로는 그의 가족과 함께 와서 축하하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폭도들이 악감을 품고 그 예배당을 불살라 버렸다. 구 장로와 그의 가족은 다행히 위험을 피했으나 何 목사는 불행하게도 창문으로 탈출할 때 놀람과 공포가 컸던 탓에 홍콩에 돌아온 후 오래지 않아서 中風에 걸려 다음해(1866)에 광주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런던회의 큰 손실이였다.

구봉지 장로가 홍콩에 온 후에 영국인 師多馬가 그의 학식과 재간을 중시하여 西席으로 그를 초빙하였고, 그 밖에도 성경을 번역하고 관계 있는 주석을 편집하는 것을 그가 돕도록 했다. 이러한 일이 구 장로의 신학지식을 크게 정진시켜 주었다.

동치 11년(1872)에 丹拿 목사(F.S. Turner)의 추천을 받아 런던회 만자당(灣仔堂)의 주임을 맡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직책을 맡은 후에 마음을 굳게 먹고 성실히 생활하며 매우 근면하였다. 그는 주일 예배에 성경기본교리를 명백하게 설명하여 교우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순복케 하였다. 광서 9년(1883)에 구장로는 홍콩에서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이 해는 바로 국부 孫中山 선생이 호놀룰루(Honolulu)에서 돌아온 해이기도 하다. 그 때 국부는 拔萃書室(Diocesan Home, 주교교구)에 들어가 공부하면서 그 다음해에 홍콩 공립대학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다. 국부는 자

그는 사람됨이 매우 열심이 있어서 오래지 않아서 국부를 인도하여 정식으로 세례를 받게 했으니, 국부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구봉지 장로의 간접적인 공로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래지 않아서 구장로는 광주(廣州)로 옮겨 와서 런던회가 광주에서 개척한 교회일을 하었는데 그의 영도하에 중·불 전쟁(1885)으로 인해 닥쳐온 교회의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

기가 일 년 내내 외국에서 공부한 탓에 國學의 공부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때 마침 구 장로를 알게 되었고 그 후에 그의 학문을 사모하여 그의 문하에 들어가 국학을 공부하였다. 이로부터 오랫동안 사제간의 정을 유지하였는데, 평생에 걸친 돈독한 것이었다. 구봉지 장로는 국부에게 지식과 기독교 교리상의 일깨움을 주었으니 그 영향은 실로 큰 것이었다. 국부의 호가 逸仙인데 그것은 구 장로가 지어준 것이었다. 그 후에 孫逸仙의 이름이 점차적으로 세계에 전해지고 서방 세계에서 국부를 Dr. Sun Yet Sen 이라 칭하는데, 그 번역된 음은 바로 孫逸仙 3자에서 따온 것이다. 구봉지 장로는 또 국부에게 한 사람을 소개 시켜 주었는데 그는 원적은 스위스이면서 미국 국적을 가진 喜嘉理(charles Hager)목사였다. 喜 목사는 美國회중교회 선교회(American congregational Mission)에 소속을 두고 있으면서 중국에 와서 선교하는 목사였다.

그는 사람됨이 매우 열심이 있어서 오래지 않아서 국부를 인도하여 정식으로 세례를 받게 했으니, 국부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구봉지 장로의 간접적인 공로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래지 않아서 구장로는 광주(廣州)로 옮겨 와서 런던회가 광주에서 개척한 교회일을 하었는데 그의

영도하에 중·불 전쟁(1885)으로 인해 닥쳐온 교회의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 光緒 14년(1885)에 구 장로는 독일 東語 學堂의 초청을 받아 中國語文 교수로 독일에 갈 기회가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아내가 아파서 멀리 나가기를 꺼려하였으나 도리가 아니라고 아내가 권하는 바람에 마침내 독일에 가서 가르칠 것을 수락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 42세였다. 그가 베를린에 있을 때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내를 잃은 고통을 안고 독일에 머무르며 교수의 직임을 견디어 내었다. 공무의 여가에는 부지런히 독일어를 배웠다. 그 덕분에 마침내는 독일어를 사용하여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학과 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항상 독일 주재 중국 대사관 직원들과 서로 이야기하며 왕래하였는데 대화하는 도중에는 잊지 않고 기독교를 그들에게 전하였다. 그는 귀국한 후에 광주에서 살고 있는 사위인 伊文楷 의사 집에 기거하였다. 그 때에는 국부 또한 광주에서 개업하고 있어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광서 20년(1895)에 국부는 제1차 광주의거를 일으켰으나 불행하게도 실패하여 위험을 피하여 홍콩으로 망명했고 구장로도 난을 피하여 홍콩으로 갔다. 구장로는 홍콩에서 런던회 道濟會堂 장로로 임명되어 교회를 섬기고 張祝齡 목사를 도와 직무를 다하면서 자신이 은혜입은 것을 저버리지 않았다.

민국 2년(1914)에 세상을 떠나니 향년 67세였다. 그의 일생을 종합하여 劉鑒 목사가 몇 구의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말로 평하기를 「공은 성품이 곧고 맹렬하기가 베드로와 같고 자애롭기가 요한과 같으며 뛰어난 재능이 홀려넘치나 도에 지나치지 않음이 요한과 같으며 뛰어난 재능이 홀려 넘치나 도에 지나치지 않음이 또한 바울과 같다.」라고 했다.

확실히 그의 일생에서 마땅히 들을만한 찬사라 아니할 수 없다. ◆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중국선교방식



김종운 교수(전주대학교 역사학과)

최근들어 한국 교계의 해외선교의 목표가 정부의 북방정책과 軌를 같이하여 북방선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북방정책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든 이 정책은 세계의 개방 물결에 부응하는 정책임이 틀림없듯이 교계의 북방선교도 시대적 대세에 순응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특히 북방선교의 중심이 되는 中·蘇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로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자체가 귀중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두 나라에는 과거역사의 유산으로 많은 우리의 동족들이 살고 있어 해외동포에 대한 선교차원에서도 대단히 의의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 중에서도 우리와 역사적 문화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 온 중국에 대한 선교는 우리 해외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중국선교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本稿는 明末과 淸末의 위대한 선교사 마테오 리치와 알렌의 선교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중국선교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사업의 역사는 꽤 길다. 당대에 이미 '景敎'란 명칭으로 전입되기 시작한 기독교는 원대에 육로를 통해 본격적으로 전래되었고 이 때는 宗室과 大臣들 중에서 많은 신자가 있었다. 그러다가 몽고제국이 붕괴되고

오스만제국이 서아시아에 건립되자 동서양의 육로교통이 단절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독교의 동방 진출도 약 200여 년 간 중단되었다. 그후 명대에 이르러 해상 동서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서방 선교사들이 직접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마테오 리치 등의 예수회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명말은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온 역사 이래 가장 활발한 선교활동이 이루어졌던 시대였다. 그러다가 청대에 이르러 청조의 쇄국정책으로 인해 다시 동서교통이 중단되고 기독교도 쇠퇴하게 되었다. 그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문호가 강제적으로 개방되면서 다시 선교사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후 공산정권이 수립되고 다시 기독교는 탄압을 받게 되었고 선교사의 입국이 아직도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볼 때 중국에서의 기독교의 역사는 매우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중국에서 그다지 부흥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정치적 원인이 주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와 못지않게 선교사들의 잘못된 선교방법도 중요한 선교실패의 원인이 될 것이다. 가령 비교적 선교활동이 보장되었던 명대와 청말의 경우 마테오 리치 외에도 여러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대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청조의 경우 열강과 청정부

이들 선교사들의 실패 원인은 중국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오만한 우월의식을 가진 자질부족이 주된 이유가 될 것이다. 즉 그저 中國語文 능력과 피상적인 中國人觀만을 통해 선교하려다 실패하고 만 것이다.

의 보호를 받는 등 좋은 조건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으나 몇몇 선교사를 제외하고는 역시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을 볼 때 단지 정치적인 이유만을 들어 중국에서의 기독교 지지 부진의 원인으로 돌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선교사들의 실패 원인은 중국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오만한 우월의식을 가진 자질부족이 주된 이유가 될 것이다. 즉 그저 中國語文 능력과 피상적인 中國人觀만을 통해 선교하려다 실패하고 만 것이다.

中國民族史는 그 역사가 장구하고 복잡하게 얽혀져온 까닭에 중국민족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역사와 이를 통해 형성된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국선교에 있어서 중국어문 능력은 기본이 되고 중국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중국인에 대한 이해는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명대의 가장 성공적인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와 청말의 알렌은 바로 중국문화와 중국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선교활동을 수행했다. 양자의 공통점은 모두 중국의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문화의 이해를 위해 일반적인 언어는 물론 중국의 경전 등 수많은 전적을 섭렵하여 나중에는 당대의 어느 대학자라도 함께 중국의 학문과 사상을 논할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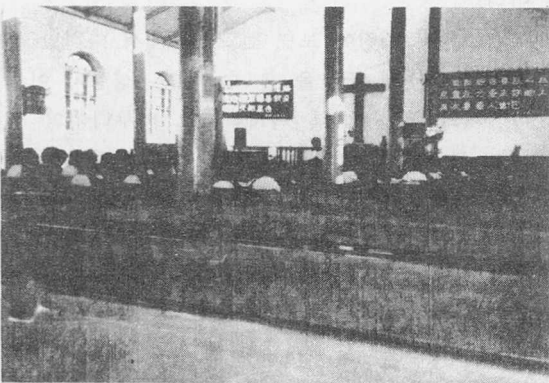
구비하게 되었다. 그는 중국인의 자기 우월관념을 이해하고 세계지도를 그릴 때에는 중국을 정중앙에 배치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명칭도 중국 옛지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중국식 복장을 착용하고 그의 이름도 중국식으로 三字의 利瑪竇라고 불렀으며 설교시에는 자주 유교경전을 인용하여 성경을 해석하였다. 이같이 그는 중국사회와 습속에 적합한 선교 방식에 착안하여 효율적인 선교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급하게 선교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즉 중국인으로 하여금 서양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유발시킴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알렌 역시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했는데 그와 당시의 다른 여러 선교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중국의 당시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에 적합한 선교전략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그의 선교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上級階層으로부터 下級階層으로의 선교(由上而下)이고, 둘째는 西學을 보급하며 선교하는 방식(以學輔教)이다. 다시 설명하면 당시의 일반 선교사들은 '개인의 영혼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일반 민중에 대한 복음 전파를 중시함으로써 교회의 양적 증가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알렌은 개인의 영혼구제 보다는 의료와 교육사업을 통한 사회복음을 중시하였다. 또한 그는 중국사회에서 사대부가 핵심계층으로서 사회의 영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중시하고 사대부에 대한 선교를 통해 기독교의 일반 대중화를 이루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중국사대부의 호학정신을 이해하고 서학을 보급하였으며 그의 중국명도 호학과 유사한 뜻의 '樂知'를 사용하여 '林樂知'라 하였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유교와 기독교와의 비교를 주제로 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이는 유교사상연구를 구실로 하고 실체는 성서의 이해를 돕고자 함이었다. 따라서 기독교의 凡愛를 유학의 '인'과 '의'로 설명하고 '중용' 등 유교경전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였다.

이상 마테오 리치나 알렌의 선교활동을 보면서 그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사실 중국인은 선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민족이다. 왜냐하면 중국인은 그들의 장기적이고 독립적 역사발전 속에서 배타적 이면서 강력한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유지해 왔고 地大物博이라는 말 그대로 완전한 자치자족적 경제체제를 갖추어 왔으며 유교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회윤리체제를 일찍이 형성하였으니 외부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도 느낄 수 없었다.

따라서 중국에는 어떤 외래문화나 외래종교가 발 붙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서 성공한 것은 불교의 독특함에서라기 보다는 중국의 전통사상인 도교와의 유사성 때문이라는 점은 바로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고 하겠다.



(중국 당동교회의 예배 모습)

우선 우리는 중국인의 전통적 “文化的 自足感”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알맞는 합리적인 선교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이 필요로 하는 ‘무엇’을 연구하여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時宜 적절한 선교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종합적으로 성공적인 중국선교를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는 중국인의 전통적 “文化的 自足感”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알맞는 합리적인 선교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이 필요로 하는 ‘무엇’을 연구하여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時宜 적절한 선교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개인의 영혼 구제에만 중시하여 量的으로만 팽창된 한국교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중국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복음에도 힘을 써 양적인 발전과 함께 질적 향상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중국에는 수많은 우리의 동포가 살고 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우리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엄연히 중국인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선교도 전반적인 중국선교의 일환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

중국선교와 중국선교사명자

유소충 목사 (영등포중화교회)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한국교회가 이제 피선 교국에서 선교국으로 성장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진보라 아니할 수 없다.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실제적인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산권선교까지 지향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특히 근래에 와서 한국교회는 중공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선교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 많은 사명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 중국의 복음전파를 위해서 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회마다 중국선교를 부르짖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필자는 중공땅을 본향으로 두고 있는 중국인 목사로서 197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3만 명의 화교를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모든 흐름과 상황을 알고 있으며 중국선교를 위해 일하는 여러 선교기구에도 몸담고 있다. 지금은 중국선교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구인 중국선교연구원에서 중국선교사를 양성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孫子兵法」에는 이런 말이 있다. “知彼知己 百戰百勝” 즉 상대방을 알고 나 자신을 알면 백번의 전쟁에서 다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전장에 선 병사라 할 수 있다(엡6:10~17). 이 영적인 전쟁은 꼭 승리해야만 한다(딤후2:1~8). 또 주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는다. 중국선교를 연구하고 또 추진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중국선교는 神依存的이어야 한다.

선교를 하는 사명자들에게 있어서 기초적인 이

야기 같지만 이것이 선교현장에서 현저하게 沮害 요소가 되어 왔기에 재삼 강조하고 싶다. 외국선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중국선교에 있어서 너무 지니치게 자신과 지식을 믿거나, 물질을 믿으면 선교役事는 결코 잘 이루어질 수가 없음은 선교현장에서의 결과가 가르쳐 주고 있다. 선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이기에 육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선교사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다. 선교는 힘이나 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비로소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선교현장에서 나타난 성령의 직접적인 干涉을 볼 수 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의 복음전파를 금지하시고 비두니아의 선교도 불허하시며 마게도니아의 선교현장으로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20세기의 시대적 사명자로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진실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선교역사에 있어서 인본주의는 절대적으로 금물인 것이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으로, 인간의 찬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잘 마쳐야 할 것이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중국인들의 아침 출근길)

없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고로 선교 사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2. 중국선교는 그 문화에 대한 깊은 탐구가 필요하다.

선교는 타문화와 언어에 대한 인식없이 단지 사명과 열심만 가지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중국의 문화는 유구한 문화이기에 여기서 몇 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우나 중국문화는 두 개의 흐름을 가지고 있음을 말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유교의 배경이고 또 하나는 중화사상인 것이다. 중국선교 사명자들은 필히 이 두 가지 문화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다. 과거의 서방선교사들이 중국선교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도리어 敎難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바로 이 중국문화의 중심이 되는 유교사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중화사상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충돌인 것이다. 중국은 心膺이 백지상태나 진공상태의 민족이 아니라 마음깊이 간직하고 있는 유교문화 속의 민족이라

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유교문화의 중심사상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복음적 처방을 하지 않으면 거듭되는 실패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유교사상과 중화사상에 妥協하자는 말은 아니다. “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말처럼 승리의 복음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중국인들의 심층 깊이 자리잡고 있는 토착문화에 대해 탐구하고 연구함은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면 本號에서는 지면이 허락되는 대로 중국문화의 여러 측면을 탐구해 보기로 하자.

1.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선교

中國 近百年 동안은 문제가 가장 많은 시기라 할 수 있다. 그 문제 하나하나를 분석해보면 모두 다 文化問題라는 것은 注目할 일이다. 清末以來 문화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자가 많았고 이론의 충돌도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화합, 전통역사의 계승을 통해서 문화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이천 년 역사에 있어서 또한 선교학적 각도에서 볼 때에 만족스러운 해답이 되지는 못한다. 중국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역사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국문화에 대한 연구는 선교라는 대과제를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선교가 타문화권을 향하는 복음적 도전이라면 피선교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필연적인 것이다.

2. 중국문화의 두 가지 구분

① 문화의 지역성

문화의 지역성을 형성하는 원인은 인간이 각기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창출해 내는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산지주민과 평지주민의 문화가 다르고 대륙주민과 섬주민의 문화가 다르고 아세아와 유럽의 문화가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지역성은 인류사회가 지리환경을 이탈하여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대일수록 이러한 지역성의 영향이 크다. 인류가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지역환경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이 낮아지고 따라서 문화의 지역성도 줄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선교를 하는 우리들은 중국 각지역의 문화적 배경을 폭넓게 이해하여야 효과적인 선교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고전 9:20)라고 했다. 또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고 하셨다.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대문화가 사마리아문화와 같을 수 없고 땅끝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나라의 문화와도 같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각각 다른 지역문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선교사가 해야 할 급선무인 것이다.

② 문화의 시대성

문화의 시대성은 고대문화와 중세문화가 다르고 19세기의 문화와 20세기의 문화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문화의 시대성은 또한 문화는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시대적인 변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기에 피전도자가 처하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를 배경하지 말고 이해하는 수용태세가 필요하다.

3. 中西文化의 공통점과 차이점

① 공통점

중국문화는 구미 민주국가의 문화와 현저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공통점도 적지 않다. 미국의 Laufer 박사는 1932년 3월의 과학의 미국이란 잡지에서 중·미의 접촉점을 주제로 한 글을 발표하여 중·미 문화의 공통점 다섯 가지를 말했다.

a. 민족정신

民治, 民有, 民享은 미국의 고유원칙이며 또한 중국선민들이 공신하는 현저한 정신이기도 하다.

맹자는 B.C 4세기경에 이미 군경민경사상을 주장한 바가 있다.

b. 신앙자유

중·서 문화의 공통점 중에는 역시 신앙의 자유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할 수 있다.

c. 사회평등

중국은 본래 계급제도는 없으며 지식상의 귀족만 존재하였다. 그들의 귀족신분은 학문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d. 정의관념

중·서 문화 가운데 민족우월감은 없고 인도주의와 평화승상을 중요시한다.

e. 교육에 대한 신념

尊賢尚智와 학술을 人群進歩의 최대보장으로 안다.

② 차이점

a. 심령표현 형태에서 본 차이점

중국문화는 도덕심을 중시하고 서방문화는 인지를 중시한다. 인지심의 표현은 대상 또는 사물을 찾는 데 있고 도덕성은 내적인 면을 강조한다.

b. 방법으로 보는 차이점
중국문화는 直覺을 중시하고 서방문화는 理智를 중시한다.

c. 문화의 공적을 통해 보는 차이점
문화의 공적을 통해 볼 때 중국문화는 도덕적인 면에서 많은 수확이 있고 서방문화는 과학적인 면에서 수확이 많다고 볼 수 있다.

4. 중국문화를 연구하는 방법

한 민족의 문화를 깊이 탐구하려면 몇 가지 길 이 있다. 즉 그 문화 속에서 살면서 탐구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또한 그 시대와 상관없이 탐 구하려는 민족문화의 시대적 산물을 통해서 탐구 하는 간접적인 방법도 있다.

① 생활관습을 통한 연구

다른 민족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그 민족의 생활양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각도에서 비교연구할 때는 반드시 연구대 상국의 문화와 자국문화의 상통 혹은 상반,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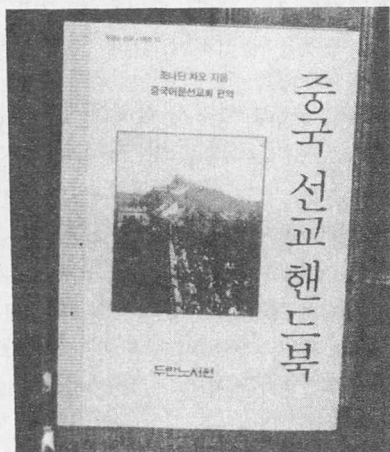
혼합적인 면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타문화 를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화권 속에서 살면서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다.

② 藝術品을 통한 연구

각종 회화, 조각, 예술품은 한 민족을 이해하 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예술품 속에서는 그 시대 의 상황, 사상문화가 담겨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 는 것이다.

③ 文物을 통한 연구

어느 나라의 문화를 연구함에 있어 그 나라의 서적을 많이 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문 화를 연구하는 길도 마찬가지로 중국서적을 많이 접해야 한다. 특히 대표적인 문화서적을 읽어야 한다 周나라 저작으로는 周文王, 周公, 孔子, 孟 子, 莊子, 漢나라의 班固, 삼국시대의 諸葛亮, 唐나라의 이백, 송나라의 司馬光, 朱熹, 張載, 淸나라의 顧亭林, 王念孫, 이상의 인물들은 聖 人, 史學者, 文學家, 政論家, 考古學者로서 매우 重要한 인물들이다. ◆



중국선교핸드북

조나단 차오 지음
중국어문선교회 편역

중국교회연구소 소장이며 중국선교의 최고 권 위자인 홍콩의 조나단 차오 박사의 (The China Mission Hand Book)을 중국어문선교회가 완역하고, 여기에 중국어문선교회와 두란노 서원이 중국선교에 관한 방대한 양의 최신 자 료들을 부록으로 덧붙여 놓았다. 중국선교에 관한 한 최고, 최대의 자료집. 중국을 알려고 하거나 중국선교에 헌신할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신앙과 전공의 조화

박성주 교수 (본 선교회 대표)

우리에게 있어서 전공이 먼저인가? 신앙이 먼저인가? 아니면 신앙과 전공이 각각 따로인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중심이 확실히 잡혀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하고 있는 전공을 살펴보고 또한 신앙과 전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성경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사람들은 이런 갈등들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전공은 무엇이며 나의 신앙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생각해 보고 개인과 성경반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1. 긍정적인 자아상 - 나는 누구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의 존재 의의, 이것이 확실하면 그 다음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첫째,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신앙이 확실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아무 목적없이 우연히 생겨났다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그만이며, 어떻게 살아도 다 허무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면서 보람과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볼펜은 쓰여지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볼펜이 자기는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며 자기 마음대로 찌르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겠다거나 던져서 벽에 꽂히는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목적을 두셨는데 내 맘대로 살지는 않았나?

둘째, 내가 어떤 목적성을 가졌나를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상품을 만들고 상품의 목적과 사용방법을 알기 위해서 제품설명서를 덧붙이는 것과

같이 나를 제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 하며 내가 고장나면 성경을 보고 고치며 그 목적을 성경을 보고 알아 자신의 방향을 확실히 잡아 나가야 한다. 이렇게 창조의식과 목적의식을 확실히 세우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잡아 나갈 수 있다.

셋째,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좌절하며 교만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사명과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나의 장점을 파악하여 인정하되 교만하지 말고, 단점도 인정하되 열등감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을 때 가능하다.

2. 준비하는 삶 -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며 무슨 일에 쓰임받아야 할 것인가?

어떤 때는 준비만 하다가 실제의 일을 못할 수도 있지만 또한 준비하는 일 자체도 사역일 수도 있다. 흔히, 나는 준비하고 있어서 교회일도 하나님의 일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준비와 일은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준비일 수도, 사역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처지를 잘 아셔서 거기에 맞추어 돌보시며 일을 시키신다.

나는 '81년도에 주님을 만나 그것이 기뻐서 중국문학을 공부하면서도 신학공부를 하고 싶어 했

다. 이 일을 위해 5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기도하기도 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에 최선을 다하느냐는 물음심이었다. 현재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앞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지금의 방송통신대학에 오게 하시고, 중국어 성경반을 시작하게 하시며, 성경반을 통해 중국어문선교회를 시작하는 동기를 제공해 주셨다. 여러분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가? 공부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청년 때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연연하지 말고 먼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이다.

여러분이 대부분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다. 중국선교를 위해서가 아니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중국어성경반 - 신앙공동체에의 참여

우리는 대개 중국선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러나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멀어지게 되지만 의외로 중국어전공과 신앙을 연결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다. 먼저 직접 선교할 수 있는 일을 보더라도 평신도선교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몸담은 직장을 통해서도 선교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예를 들어 중국어문선교회를 통해 문서 한 장 번역하는 등과 같이, 거창하지 않고 작아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선교이다. 또한 앞에서 뛰지 않더라도 기도로 돕는 것,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현재 중국선교 전문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곳에 연결되어 도움을 받고 봉사하며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일을 혼자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럿이 함께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고 같은 비전을 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성경반과 같은 공동체를 통해 선배가 이끌며 후배



는 따라가는 풍토가 신앙공동체속에서 있을 수 있다. 또한 신앙과 전공의 조화가 되지 못해서 자주 떨어져 나가려 할 때 점검하고 회복하는 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어성경반의 대상을 중국선교에 제한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허용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신하게 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도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훈련해야 한다. 이렇게 중국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날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자.

4. 몇 가지 제언

첫째, 성경반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각자 독자적인 활동을 가지면서 동시에 각지역 성경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연합회가 생겨야 할 것이다. 연합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중국어 찬양대회, 중국어 성경암송대회, 원어로 된 단막극 경연대회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호교류를 통해 학습경험, 선교정보 등을 교류할 수 있다.

둘째, 이렇게 중국어 성경반이 결성되고 활성화되기 위해 중국어문선교회가 실제적으로 도와야 하며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면서 협력해야 한다. 

중국어문선교회 사역 방향

이요한 (본 선교회 총무)

I. 서론

이제 한국은 북한과 유엔동시가임을 앞두고 있어 총회에서 통과만 되면 정식 유엔 가입국이 된다. 이러한 남북한의 동시 유엔가입이 중국선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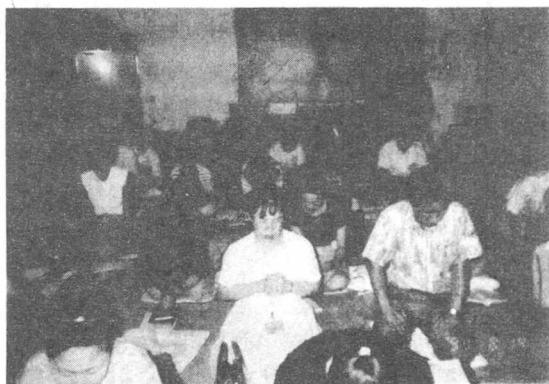
중국의 외교국 당국자가 “한국이 유엔에 가입을 하면 한·중 수교도 되야 하지 않는가?” 하는 한국기자의 질문에 “중국은 유엔의 안보리 이사국이며 유엔을 지탱하는 중추국가인데 회원국에게 이사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회적인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한중관계 개선의 선교적 의미

한·중 교역이 시작되어 무역대표부가 북경과 서울에 생기면서 인천과 위해(산둥)에 카페리가 취항하게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교가 수립되면 북경, 심양 등으로 정식 유학도 가능하게 된다.

한·중관계의 물고를 뜬 계기가 된 사건은 80년초에 군산 근교에 중국민항기가 불시착했을 때이다. 승객과 기체 송환에 호의를 베풀었던 것과 돌아갈 때 그들의 짐속에 넣어준 물건들이 한국의 발전상과 한국의 호의를 그들에게 잘 전해 주었던 것 같다. 북한에 불시착하려 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와 중국간의 좋은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게 하셨다.

어떤이들은 한·중 수교를 올해말쯤 보기도 하



(수련회 참석자들의 기도하는 모습)

는데 늦어도 2년 안에는 수교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양국수교에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중국선교를 하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조나단 차오 목사는 진단하기를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앞으로 서기 2천년이 되면 중국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추수현장이 될 것입니다. 곡식들은 이미 추수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추수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는 날이 이르게 되면 중국은 전세계로부터 추수 사역에 참여

할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믿는 바는 그 일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향후 10년은 다가오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의 10년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분은 수교차원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선교사역을 할 수 있는 그날이 2천년에는 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10년 동안 어떠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며 한국교회는 중국교회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또한 중국어문선교회는 교회를 도와 어떠한 모양으로 준비해야 그때에 때를 놓치지 않고 추수현장에 가서 마음껏 추수할 수 있겠는가?

2. 한국교회의 중국선교관

한국교회가 중국복음화를 처음 외친것은 빌리 그레함 목사 집회 이후라고 보는데 지금으로 부터 약 15년전 중국이 여전히 족의 장막으로 남아 있을 때 중국복음화의 기치를 올렸다. 그러나 지금 막상 문이 열렸어도 한국교회가 적당한 대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첫째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의 시각이 지역적, 민족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물량주의이다. 한국교회는 중국교회를 돕는다는 것을 그쪽에 교회 건물을 지어 주는 것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한다. 어떤 교회에서는 중국에 교회를 지어주기 위해 평당 3십만 원으로 계산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한국교회는 이런 식의 물량주의적 중국선교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세째로 한국교회의 교파팽창, 교세팽창을 위한 욕심들을 버려야 한다. 한국에 장로교만도 백여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중국에 저마다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는가를 생각하며 인위적 욕심을 가지고 선교하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계도하고 자료, 논리, 서적 등을 보급해 주어 그들의 생각들을 바꾸어야 한다.

3. 중국교회현황

중국교회는 49년 공산화 당시 70~80만이던 기독교인의 수가 5천만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문화혁명 이후에 급속한 성장을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의 성도의 수를 천만으로 보며 그 중에 중생한 자의 수를 그 1/4인 25만으로 본다. 그러나 이에 비해 중국에서는 거대한 성도의 수가 대단히 많다. 그들은 예수를 믿을 때 목숨을 내어 놓고 믿으며 다른 목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 사실이 중국교회가 짧은 시간내에 놀라운 성장을 보게 된 배경이 되었으며 중생한 자의 수도 5천만 중에 4천만이나 되어 한국에 비해 10배가 넘는 교세이다.

중국에는 “知彼知己면 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자는 이야기인데 한국교회는 중국교회의 실상을 모른다. 그리고 스스로 자만에 빠져있어 지기도 되어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결과는 百戰百敗일 것이다. 중국교회의 실상을 한국교회에 정확히 알려 한국교회가 중국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것과 한국교회 자신을 바르게 깨우쳐주는 것이 중국어문선교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II. 본 론

1. 새로운 선교관의 요청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멤버십이라고 한다. 새로운 선교관을 요청하는 이 때 표어가 되어야 할 것이 멤버십이다.

멤버십은 첫째 자기역할이 있어야 한다. 즉 자기의 해야할 역할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몸 가운

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중국어문선교회
가 중국선교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
한 이해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남들
이 하는 사역에 대해 호감을 갖지 않고 경쟁을
한다. 이것은 새로운 선교관과 지체의식에 부합
하지 않는다.

규모를 넓혀서 중국교회에 대한 사역을 세계교
회란 하나의 틀로 생각해 본다면 세계교회 가운
데 한국교회가 중국교회를 도울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러한 면에서 바른 자기판단이 있어
야한다. 우리는 열성적이어서 시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의 교회도 한국교회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순발력으로 세계교회에 공
헌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음은 인력이다. 준비
된 인원은 많지 않지만 나서고자 하는 인력은 많
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되는 일이니 어쨌든
인력은 풍부하다. 또한 물질로 공헌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어떤 모양이든 물질이 풍부해서 어디
에 쓸 줄 모르고 있다. 이상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교회를 돕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한
국교회가 베푸는 자세로 또는 중국을 교화 시
키겠다는 제국주의적인 발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사역의 방향

현실적으로 교세, 교파팽창주의 각도에서 중국
선교에 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세가
중국에 비해 십분의 일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른 사역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해 볼 수 있다.

① 중국교회 토착화를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교파팽창과는 반대되는 의미로서 기존에 있는 중
국교회를 육성해야 한다.

② 삼자원칙의 존중이다. 삼자원칙은 1897년

우리가 중국교회를 돕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한국교회가 베푸는 자세로
또는 중국을 교화 시키겠다는 제국주
의적인 발상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
이다.

존 버클러선교사가 제창한 것이다.

반기독교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가 제국주
의의 앞잡이라고 공격을 받게되자, 중국교회는
외국선교사들의 지도를 받지 않는 독립된 중국교
회를 세우려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워치만니
가 지방교회, 왕명도 목사님이 중국기독교당을
세웠다. 이러한 토착교회운동이 49년 공산화 이
후 지하로 숨어버리고, 지금은 관방교회인 삼자
교회가 차용해서 쓰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적
화되고 또 가혹한 문화혁명 가운데서도 중국교회
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1920년대 후반의
토착교회운동과 자립교회 영향 때문이었다. 그러
므로 중국교회의 상황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어
야 한다.

③ 중국교회의 건실한 성장 지원

서양어린이 중에는 암환자가 많이 생긴다고 한
다. 왜냐하면 서양어린이는 열몇 살만 되어도 신
체가 어른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리와 판단
의 기준은 어른을 따라가지 못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중국교회도 이러한 양상을 띠게 된
다. 너무 급격하게 성장한 나머지 신학적, 교리
적 뒷받침이 따르지 못해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
난다. 예를 들어 이단이 일어나는 것과 또한 지
금은 순수한 열정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어느 선
에 가서는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이다. 기독교 책
자와 문서 보급으로 이들을 건전한 신학으로 뒷
받침해 주고 그들의 건실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
다.



(찬양과 율동으로 주님께 영광을)

마지막으로 올바른 교회관의 확립을 도와야 한다. 중국교회는 독자성이 매우 강하다. 예를 들면 위치만나는 다른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참예수교도 다른 집단은 이단 시했다. 중국교회가 자기 독자성을 추구하면서도 교회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중국내에는 이슬람교가 5천만, 라마교가 5백만, 기타 이교가 많이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교회가 라마교, 이슬람교에 대한 공격적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슬람권인 위그르지역에 그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 다수의 한족을 이주시켰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지역이든 10% 이상의 한족이 이슬람권내에 자리 잡고있다. 그들을 통해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세울 수 있도록 이교권에 대한 선교의 자극도 주어야 한다.

3. 사역의 내용

① 중장기 사역

국내사역으로는 중국선교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설립되어 많은 유휴인력들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한국교회에 지적해 주고 한국교회에 중국교회를 위한 바른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앞서 말한 중국을 위한 문서 사역을 위해서 현지에 중국교회가 주체가 되든 혹은 한국교회가 돕든 복음적 출판사가 설립되어야 한다

② 단기 사역

단기적인 사역으로는 교포선교가 있다. 조건이 가능한 한 어떠한 방법으로든 매주 천명씩 오는 교포들과 이제 10월이 되어 천진과 인천간에도 카페리가 운항하게 되면 교포뿐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중점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다. 또 연구원 양성을 위하여 싱가포르나 홍콩 대만 등지에서 단기적으로 연수훈련을 받도록 연구원을 파송 지원하는 단기사역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유학 센터의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만간 중국과 수교가 되면 중국내 920여 개의 대학에 유학생들을 보내 선교에 대한 여러 노하우를 축적해 나간다면 중국선교에 있어 큰 도움을 받을 있을 수 것이다.

끝으로 비전트립(Vision trip)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여행코스가 아닌, 중국교회의 바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코스개발을 할 수 있겠고, 또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여행을 통해 중국선교에 대한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조만간 중국선교를 자유롭게 해주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그리고 내실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작 한국교회의 많은 일꾼들이 그 곳에서 일해야 할 때 당황하지 않고 또 기회를 잃지 않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전도의 길로 나아가다

王欣欣

(번역부제공)

편집자의 말:

한 차례 광주를 여행하던 중 우연히 이 한 편의 간증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위태롭기 그지없는 목조 누옥에서 한 여공 처녀가 나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려 주었다. 평범한 출신, 평범한 삶이었으나 그에 비할 바 없는 하나님의 평범치 않은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다. 겉으로는 신앙의 격동을 볼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창조해 내신 생명의 능력은 느낄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사랑의 이끄심을 통하여 그녀는 주위의 무신론적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되다

우리는 복건성에서 살았는데 조상제사와 우상숭배가 집안 대대의 신앙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단지 전통을 습관적으로 따른 것일 뿐이어서 그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우리 집에 닥친 연이은 불행들이 우리를 높고 심원하시나 쉬운, 초월해 계시지만 구체적인 그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였다. 그분은 우리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셨을 뿐 아니라 더욱 우리의 심령의 세계를 만족시켜 주셨다.

1963년 어머니는 신장염을 앓게 되었고 게다가 오랫동안 신경쇠약에 시달려서 온 가족은 가슴 조이며 어두운 먹구름 속에 덮혀 살았는데 설상가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병도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치를 모르거나 하는 듯 우리 자매는 항상 번갈아가며 병치레를 했다. 유모는 다급히 백방으로 신령에게 빌어 평안 얻기를 구했으나 평안은 오히려 저 멀리에 있었고 위로 받기를 바랐으나 오히려 근심만 더해 갔다. 이러던 중 어떤 선생이 어머니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불필요하다고 느껴서이기도 했으나 아버지의 반대 때문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일은 기억 속에서 곧 사라져 버렸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고통을 보고 갖은 방법을 다해서 엄마를 위로하여 집안의 어두운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애썼지만 잠깐 기뻐지는 듯하다가도 이내 근심은 여전하였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으로 통증이 극심하여 참

을 수 없어 도와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통증이 곧 점점 사그러들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것을 다만 우연의 일치라고 여겼다.

아버지의 서원

2년 후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가 우리 집에 떨어졌다. 아버지가 방광암을 얻으신 것이었다. 온 가족은 다시 한 번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다. 아버지는 이제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고 천성이 낙천적 이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는데 막상 임종이 닥쳐오자 아버지도 생명의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권했으나 원치 않았다. 여러 번 수술을 했지만 때가 완전히 늦어버렸다고 의사가 판정을 내리자 아버지는 그 때야 비

로소 죽음을 직시하고 생명이 결국 자기 수중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절망중에 아버지는 시험삼아 하나님께 “만약 저를 치료해 주신다면 제 여생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약했다. 비록 조건부식의 거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들어 주셨다. 아버지는 지금도 원기왕성하셔서 작년에는 운동에서 3등을 할 정도였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짐받은 고모의 딸

아버지가 병중에 계셨을 때 고모가 늘 휴가를 내어 문병을 오셨는데 우리가 병상 옆에 둘러서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고모는 매우 참을 수 없어 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의사였던 고모의 이성으로는 용납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모에게 어떤 치료의 능력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넘어 선다는 것과 볼 수 있는 현실 세계 밖에 또 다른 영의 세계가 있어 사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 같은 때에 고모의 딸이 아무 이유없이 귀신에게 매를 맞곤 했는데 그 아이가 발작할 때면 모든 사람이 땅바닥에 뒹굴 정도로 고통을 당했고 고모는 이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그치지 않아 항상 아이를 안고 통곡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한데도 더이상 어찌할 수 없게 되자 고모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방법을 택했는데 우리와 같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귀신이 물러갔다.

집안에 내리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를 사용하셔서 기독교 배경이라고는 전혀 없는 가운데 우리 가족 부모 일대를 선택하셨고 이것 때문에 전가족이 헌신케 되었으니 집안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초가 되었다. 주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웃들이 우리 집을 불쌍히 여기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불쌍히 여겼던 것은 병고가 가져온 가난 때문이었고 의심스러워했던 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비록 이웃들은 분명히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우리는 은연중 조상의 음덕을 받지 못해서 집안에 이와 같은 많은 액운이 닥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 이었다. 지금은 이웃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집을 겹겹이 둘러 치셨기 때문이었다.

믿기는 믿었으나

집안에서 하나님의 여러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언니의 자상한 관심과 인도, 희생의 모범이 있었기에 내가 주님을 믿는

다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봉헌은 기나긴 마음의 행로를 거쳐야 했다. 나는 언니가 지닌 감화력을 부러워했고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간절한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으나 언니처럼 나도 할 수는 없었다. 내가 주님을 믿은 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이었다.

주님을 믿은 후 감히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못했던 것은 지옥 불이 무서워서였다. 그러나 믿음을 구하는 마음은 없었고 봉사의 의미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복음전도의 열정은 조금도 없었다. 단지 매일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보면서 심령의 갈급함만 채울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미루면서 모임에 참석하려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은근히 편안하지 않아 신앙은 내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다. 나는 사실 주위의 신비스러운 간증을 부정할 수는 없었으나 억지로 나 자신의 연약을 이겨낼 수도 없었다. 언니는 쉬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 했으며 하나님께서도 내게 실망치 않으셔서 내가 자라나서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그 분을 의뢰하기를 원하게 되기까지 기다려 주셨다.

북전에서 광주 의 공장생활로

졸업후 흥분과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은 채 광주로 와서 공장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내 생활을 독립할 수 있어서 더 이상 집안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

게 되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처음의 그 신선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였고 고독한 심경으로 생소한 환경과 성격이 틀린 사람과 대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의 동료들은 나와 다른 성장환경,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어서 집안 식구처럼 나를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했다. 원래 성장의 과정이란 탄탄대로가 아니어서 여러 가지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줄곧 교만하고 자신만만했던 내가 어떻게 이런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을까? 동료와 함께 지낸다는 것이 내게 큰 압박이 되었다. 내가 알게 된 것은 시시비비를 따진다는 것이 결코 모든 문제의 해결일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공장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침묵을 지켜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았지만 내 바로 옆의 40여 세 난 부인은 항상 내 흠집을 들추어내며 온갖 구실을 붙여 고의적으로 나에게 맞서려 들었다. 고독한 환경에서 동료와의 날카로운 대립 관계는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용납을 갈망했고 우정을 맺게 될 때도 다시 홀로될까봐 두려워했다. 나는 대립을 원치 않았으나 어떻게 바꾸어 볼 도리가 없었다. 이런 것들로 인해 나 자신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었는데 지난날의 자신감이란 과거에 어떤 압력도 당해보지 않아서 좌절과 실패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

았다. 나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에게 인내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다.

부딪힐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순복하고 넓은 이해와 큰 포용력으로 감정이 앞서지 않기를 배운다. 기도를 통하여 나는 한 차례 또 한 차례 승리하게 되었고 그 부인이 내게 대하는 태도도 점점 조금씩 변해갔다. 비록 그녀가 지금도 여전히 제멋대로이고 거칠지만 나하고는 잘 지내게 되었다.

교만하고 자신만만하던 내가 뜻밖에도 사랑으로 동료의 적대감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성격을 다듬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음을 알았다. 믿음은 내게 있어 점점 구체적이며 심각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차츰 헌신을 기쁘게 여기게 되고 남들에게 즐겁게 복음의 좋은 점을 나누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언니와 같이 교회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과 휴일에는 교회에서 상담이나 접대, 전도지 돌리는 일을 돕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게 되었다.

나에게도 첫 열매가

나는 언니의 복음전도의 열정과 은사를 부러워했는데 언니는 기회를 얻을 때마다 놓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다. 한 번은 열쇠꾸러미를

나는 재빨리 그 기회를 타서 아이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 주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나는 복음전도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어 뿔듯이 기쁜 마음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음전도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찾기 위해서였는데 우연히도 복건에서 광주로와 공장을 시작한 6,7가구를 만나게 되었다. 객지에서 고향 사람들을 만난지라 그 사람들이 특별한 반가움을 나타냈다. 언니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복음을 전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공장일은 마치지 못했으나 전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나는 언니의 마음 중심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지만 나 스스로는 말에 서툴고 성격도 내성적일 뿐만 아니라 복음전도의 은사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도록 기도했다. 한 번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데 하나님께 그리 어렵지 않은 기회를 주셔서 좌절하거나 상심하지 않게 되기를 구하였다. 기차 안에서 맞은 편에 한 남자 아이가 뜻밖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새겨진 열쇠꾸러미를 꺼내 드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나는 재빨리 그 기회를 타서 아이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 주

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나는 복음전도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어 필듯이 기쁜 마음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음전도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헌신의 길로 나서다

교회봉사를 통하여 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으며 더이상 자기만의 울타리에 살지 않게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법을 배웠고 더이상 고독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더욱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배움으로 우둔한 입술과 내성적 성격의 그들로부터 벗어나와 기쁘게 하나님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말리게 되었다.

내가 아는 것은 그 분이 우리 집안에서 기적과 기사를 행하셨을 뿐 아니라 더욱 내 자신 안에 큰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최대의 기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 성격과 사상과 인생관에 변화를 입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적극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교회」 63기 중에서)



中国선교 도서 안내

- | | |
|-------------------------------------|--------|
| 1.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전문인협력기구) | 3,000원 |
| 2. 중국선교 -- 교회의 대장정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3,500원 |
| 3. 중국선교핸드북 (두란노 서원) | 4,800원 |

中国교재 안내

- | | |
|------------------------------------|------------------|
| 1. 中國語 聖經
(신약+ 시편+ 잠언: 주음부호) | 7,000원 |
| 2. 使徒信經, 主禱文 외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 | 1,500원
1,000원 |
| 3. 經文背誦
經文背誦 Tape | 1,500원
1,000원 |
| 4. 睡夢鄉
睡夢鄉 Tape | 1,000원
1,000원 |
| 5. 飛行屋
飛行屋 Tape | 1,000원
1,000원 |
| 6. 初級中國語 I
初級中國語 I Tape(10개) | 2,000원
6,000원 |
| 7. 初級中國語 II
初級中國語 II Tape(10개) | 3,000원
6,000원 |
| 8. 中國文化二十講
中國文化二十講 Tape(3개) | 5,000원
1,500원 |
| 9. 我的第一本聖經
我的第一本聖經 Tape | 2,500원
1,000원 |
| 10. 예수 讚美(중국어 찬양집) | 3,000원 |

*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은
우편으로 신청해 주세요.

가말리엘의 권면

(사도행전 5:33-42)

공회의 사람들이 듣고 매우 노하여 그들(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리새인으로서 못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가말리엘이라 불리는 어떤 교법사가 공회 가운데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분부하여 사도를 잠시 밖으로 데려가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아,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논할 때 너희는 마땅히 어떻게 처리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종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크다 자랑하고 그를 따르던 사람이 약 400명이었으나 그가 죽임을 당한 후 그를 따르던자 모두가 흩어졌으며 그후 호구를 조사하여 등록할 때에 갈릴리에 있는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유인하여 그를 따르게 하다가 그도 멸망하자 그를 쫓던 사람들도 모두 사방으로 흩어졌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이런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들 마음대로 하게 버려두라 그들이 도모하는바, 행하는 바가 만약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반드시 파괴될 것이고, 만약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 너희들은 그들을 파괴시킬 수 없고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격할까 두렵도다 공회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사도들을 불러오게 하여 그들을 때리고 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하고 곧 그들을 석방했다. 그들은 공회를 떠나면서 마음이 기뻐다. 왜냐하면 이(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함이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며 훈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단어 해설◎

惱怒	nǎonù	성내다. 노하다
法利賽人	fǎlìsàirén	바리새인
敬重	jìngzhòng	존경하다. 경의를 품고 중요시하다.
教法師	jiàofǎshī	가르치는 선생. 교법사
站起來	zhànqǐláí	일어서다
暫且	zànqiě	잠깐. 잠시
論到	lùndào	① ~까지 말하다. ② ~까지 말하면
小心	xiǎoxīn	① 조심하다. 주의하다. ② 조심스럽다. 주의깊다. 세심하다.
辦理	bànlǐ	처리하다. 취급하다. 해결하다.
附從	fùcóng	따라다니다. 좇다. 수종하다
報名	bàomíng	신청하다. 지원하다
上冊	shàngcè	① (책의)상권 ② 등록하다. 등기하다
加利利	jiālìlì	갈릴리
不要	búyào	① ~하지말라 ② ~요구하지 않다. 필요 없다. 바라지 않다.
任憑	rènpíng	① 자유에 맡기다. 마음대로 하게하다. ② ~일지라도. ~하여도.
釋放	shìfàng	① 석방하다. ② 방출하다.

【原文】

SHĪTÚ XÍNG ZHUÀN

使徒 行 传

Dì Wǔ Zhāng

第五 章

Gōnghuìde rén tīngjian jiù jíqí nǎonù xiǎng yào shā tāmen Dàn
³³ 公会的 人 听见 就 极其 恼怒， 想 要 杀 他们。³⁴但
yǒu yíge Fálisài rén míng jiào Jiāmǎliè shì zhòng bǎixìng suǒ jìngzhòng
有 一个 法利赛 人， 名 叫 迦玛列， 是 众 百姓 所 敬重

de jiàofǎshī zài gōnghuì zhōng zhànqilai fēnfu rén bǎ shítú zànqiè dàidào
的 教法 师， 在 公会 中 站 起来， 吩 咐 人 把 使徒 暂 且 带 到
wàimian qù jiù duì zhòng rén shuō Yisèliè rén na lùndào zhèxiē rén
外 面 去，³⁵就 对 众 人 说：“以色列 人 哪， 论 到 这 些 人，
nǐmen yīngdāng xiǎoxīn zěnyāng bànli Cóngqián Diūdà qilai zìkuā wéi
你 们 应 当 小 心 怎 样 办 理。³⁶从 前 丢 大 起 来， 自 夸 为
dà fùcóng tā de rén yuē yǒu sìbǎi tā bèi shā hòu fùcóng tā de quán dōu
大， 附 从 他 的 人 约 有 四 百， 他 被 杀 后， 附 从 他 的 全 都
sǎnle guīyú wú yǒu Cǐhòu bàomíng shàngcè de shíhou yòu yǒu Jiālìlì
散 了， 归 于 无 有。³⁷此 后 报 名 上 册 的 时 候， 又 有 加 利 利
de Yóudà qilai yīnyòu xiē bǎixìng gēncóng tā tā yě mièwáng fùcóng tā
的 犹 大 起 来， 引 诱 些 百 姓 跟 从 他， 他 也 灭 亡， 附 从 他
de rén yě dōu sìsǎnle Xiànzài wǒ quàn nǐmen bùyào guǎn zhèxiē rén
的 人 也 都 四 散 了。³⁸现 在， 我 劝 你 们 不 要 管 这 些 人，
rènpíng tāmen ba Tāmen suǒ móu de suǒ xíng de ruòshì chūyú rén bì
任 凭 他 们 吧！ 他 们 所 谋 的、 所 行 的， 若 是 出 于 人， 必
yào bàihuài ruòshì chūyú Shén nǐmen jiù bù néng bàihuài tāmen kǒngpà
要 败 坏；³⁹若 是 出 于 神， 你 们 就 不 能 败 坏 他 们， 恐 怕
nǐmen dào shì gōngjī Shén le Gōnghuìde rén tīngcóngle tā biàn jiào
你 们 倒 是 攻 击 神 了。”⁴⁰公 会 的 人 听 从 了 他， 便 叫
shítú lái bǎ tāmen dǎle yòu fēnfu tāmen bùkě fèng Yēsū de míng
使 徒 来， 把 他 们 打 了， 又 吩 咐 他 们 不 可 奉 耶 稣 的 名
jiǎngdào jiù bǎ tāmen shìfàngle Tāmen líkāi gōnghuì xīnlì huānxī yīn
讲 道， 就 把 他 们 释 放 了。⁴¹他 们 离 开 公 会， 心 里 欢 喜， 因
bèi suàn shì pèi wèi zhè míng shòurǔ Tāmen jiù měi rì zài diànlì zài jiālì
被 算 是 配 为 这 名 受 辱。⁴²他 们 就 每 日 在 殿 里、 在 家 里，
búzhùde jiàoxun rén chuán Yēsū shì Jīdū
不 住 地 教 训 人， 传 耶 稣 是 基 督。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십니다.』 (벧후1:4)

(번역부 제공)

조선공이 배를 만드는 목적이 선대 위에도 그 배를 올려 놓아 두려고 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그가 배를 만드는 목적이란 그 배를 바다와 파도 중에 띄우려는 것입니다. 배를 만들 때 조선공은 이미 이 일을 염두에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자로 만드셨을 때 그분의 목적은 당신을 시련 중에 놓아 두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신뢰하라고 분부하셨을 때에는 그분은 당신에게 이미 사나운 파도의 요동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어떤 상점에서 파는 구멍대처럼 진열장 안에 진열될 수 있을 뿐 넓은 바다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지나 않는지요?

우리는 누구나 장난감으로 만든 칼이 전쟁터에 서는 쓸데가 없으며 장난감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발은 구리나 철로 만들어져 있어 '당신이 그것을 신고 하늘에까지 이를 수 있고 또 그것은 영원히 뚫어져 못신게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멍대를 걸치고 당신은 수천의 넓은 바다라도 헤엄쳐 갈 수 있고 또 빠질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약속을 한갓 진열품쯤으로 여기고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세우신 약속은 결코 사람들이 감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라고 주신 것

입니다. 독자들이여, 당신은 자신이 마땅히 받은 대로 그리스도를 즐기시며 삽니까? 신자들이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람회의 골동품으로 여기지 않고 마땅히 매일매일 그것을 사용해서 위로의 샘물로 삼으며 환란 중 어느 때라도 그분을 의지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단어 해설 □

應許	yīngxǔ	승락(하다). 허락(하다). 약속
想(到)	xiǎngdào	예상하다
試煉	shìliàn	시련
信賴	xìnlài	믿고 의지하다
狂良	kuángliàng	사나운 파도
救生圈	jiùshēngquān	구명대
陳列	chénliè	진열하다. 전시하다
殼	gòu	① 닿다. 도달하다. ② 활을 힘껏 당기다.
穿壞	chuānhuài	구멍이 뚫어져 못쓰게 되었다.
沈溺	chénì	(나쁜습관) 깊이 물들다. 물에 빠지다.
當作	dàngzuò	여기다. 삼다.
享用	xiǎngyòng	받다. 누리다. 맛보다.
古玩	gǔwán	골동품
隨時	suíshí	수시로 어느 때나
仰賴	yǎnglài	의지하다.

八月十二日

『因此祂已將又寶貴又極大的應許賜給我們。』（彼後一章四節）



一個造船工人造船的目的，是不是爲了要把船擱在船架上呢？不，他造船的目的，乃是要把船放在海洋和波濤中。他在造的時候，就已經想到了。

當神把你造成一個信徒的時候，祂的目的就是要把你放在試煉中；所以當祂給你應許，吩咐你信賴的時候，祂就給你一些在狂浪顛簸中所能應用的應許。你想神的應許會不會像有些商店裏出賣的救生圈，只能在玻璃窗內陳列，不能在洋海中應用的呢？

我們都知道：作玩具的刀劍，在戰場上是沒有用處的；作玩具的鞋子，是不能穿著走路，但是神的鞋是銅的、鐵的，你能穀穿著它們走上天去，它們也永遠不會穿壞；神的救生圈，你用以游過一千個大的海洋，也不會使你沉溺。

神最不喜歡，就是祂的子民把祂的應許當作一個展覽品，不去用它。祂喜歡我們享用它。祂所立的約並不是給人看的，乃是給我們用的。我們的主耶穌，也是神賜給我們，給我們現在享用的。讀者，你有沒有照你應得的去享用基督？

信徒啊，我求你不要把神的應許當作展覽會裏的古玩；你應當天天用它們來作安慰的泉源，在患難中隨時仰賴祂。——司布真

새해와 관련있는 이야기

(번역부제공)

浙江省 紹興지방에는 새해와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호박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나라 「홍부전」의 모티브와 전개과정이 흡사하다. 다만 사건 전환의 발생 시점이 새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점만이 큰 차이일뿐이다. 이야기를 들어보자

형제 두 사람이 분가를 하게 되었다. 형의 처는 아주 악독한 여자로서 늘 아우네 부부를 학대하였다. 아우는 가산이 망하게 되어 가난하게 되자 형에게 돈을 꾸러 갔다. 형은 거절했지만 자기의 처를 속이고 아우에게 고기 한 근을 꾸어 주었다.

그 뒤 형의 처는 이 사실을 알고서 곧장 가서는 그 고기를 빼앗고 육설을 한바탕 퍼부었다. 설날 스무아흐레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인데 아우는 채소로써 제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마침 이날 인간에게 복을 내리는 신이 도처에서 고기를 흠향하여 고기에 질려 담백한 것을 먹고 싶어하였다. 그리하여 그 신은 아우네의 집에서 아주 기쁘게 그들의 供物을 받아 먹고 아울러 그들의 지성에 감동되었다. 이에 신은 호박을 파는 노인으로서 둔갑하여 아우네에 일러 말하기를 “이 호박씨를 가져다가 심으면 사흘이면 크게 자라 호박이 열릴테니 그 호박을 먹으시오”라고 했다. 사흘 후 호박은 과연 자라나 익었다. 그들이 호박을 쪼개었을 때 그 속에 진주가 가득 들어 있었다. 형의 처도 이를 듣고 그대로 하였는데 호박 속에서 사나운 불길의 솟아나와 형네

부부를 불태웠다.

이 이야기에서는 마음씨 착한 아우네 부부가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연말에 발생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한편 廣西省 陸安縣에는 다음과 같은 고사가 전해져 온다.

가산이 망해 버린 한 노인네가 설달이 되어 자신이 진 빛이 줄줄이 산더미 같이 쌓인 것을 알고서 산위의 폐허가 된 절간으로 피신하였다. 그 때 마침 부근 작은 마을의 가난한 두부장수도 빛 때문에 이 절간으로 숨어 들어왔다. 이들은 서로 동병상련의 처지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원래 부자였던 노인이 가난한 두부장수에게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빛을 졌소?”라고 물었다. “二十錢이지요”라고 가난한 두부장수가 대답했다. 원래 부자였던 노인은 그 액수가 너무 적은 것을 알고는 그에게 二十錢을 주어 빛을 갚도록 했다. 그리하여 가난한 두부장수는 집으로 돌아가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설날 그믐 오후에 가난한 두부장수는 그 노인에게 그가 만든 두부를 가져다 주면서 이 두부는 채소와 함께 먹지 않으면 맛이 그리 좋지는 않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채소를 가지고 오는 것을 깜빡 잊어서 다시 길을 돌려 집으로 갔다 오겠다고 하였다. 뜻하지 않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잘못 들어 어떤 동굴 속으로 들게 되었다. 거기서 은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하나 발견하였다. 그는 겁을 먹고 절간으로 되돌아 가서 그 노인과 은을 반반씩 나누었

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노인은 진 빛을 다 갚고 즐겁게 새해를 맞았으며 그 뒤 이 두 사람은 함께 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다.

이 이야기 가운데서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된 일도 연말에 발생한 것이다. 이외에 다른 지방에서도 이와 유사한 줄거리의 고사가 많이 유전되고 있다. 이런 유의 이야기의 생성은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길흥화복이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연말에 쉽게 일어난다는 기적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아마도 중국에 널리 행해지고 있는 灶神(부뚜막 신)을 보내고 맞이하는 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神은 王爺 혹은 君이라 일컬어지며 모든 가정의 아궁이 불씨를 관장할 뿐 아니라 가정의 수호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부분 부엌 안에 북쪽이나 동쪽을 향하여 灶龕(조감: 부뚜막 신을 모신 감실)을 설치하고 감실에는 灶王爺의 신상을 붙여 놓는다. 灶王龕을 설치하지 않은 집에서는 신상을 벽에다 붙여 놓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灶王爺와 그의 배필로 灶奶奶신을 섬기기도 한다. 신상의 위에는 달력이 있어 「東廚司命」, 「人間監査神」, 「一家之主」 등의 글자가 적혀 있다. 이런 문자들은 灶神의 지위를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一家之主」라는 칭호는 灶神을 한 가정의 중심으로 여긴 것이다.

灶神은 그 가정의 각사람의 선행과 악행을 모두 기록하여 음력 12월 23일(華南의 어떤 지역에서는 12월 24일)에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보고를 한다. (灶王爺를 送神하는 의례를 送

조 또는 辭灶라 한다) 옥황상제는 灶王의 보고를 근거로 하여 그 가정에 새로운 한 해의 길흥화복을 灶王의 권한으로 넘겨 준다. 때문에 灶王의 보고는 그 한 가정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다. 하늘로 올라간 灶王은 일주일 후인 설달 그믐날 저녁에 일가의 길흥화복을 가지고 여러 신들을 따라 인간세상으로 돌아 온다. (대개 灶王이 천상의 여러 신을 안내해 온다고 여기고 있다.) 여러 신들은 명절을 지낸 후 곧 다시 승천하고 灶王은 그 가정의 부엌에 남게 된다. 여러 신들을 맞이하는 의례를 接神, 灶神을 맞이하는 의례를 接灶라고 한다. 이외에 새로운 신상을 감실 위에 붙일 때 일정한 의식을 베푼다. 江蘇一帶와 江西 長江 상류지방의 사람들은 설달 그믐날 밤 接神 때에 특히 王을 맞이하는 의식을 중요시 한다. 또 南京 일대에는 신상 위에다 「복을 주는 신: 定福神」이라는 글자를 써넣고 灶神을 定福神이라 부르기도 한다. 「一家之主」나 「定福神」이니 하는 것에서 민중들은 灶神을 일가의 운명을 지배하는 신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민속고사 가운데 길흥화복의 전환점이 연말에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은 일반 민중들이 이 시기를 기적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야기와 민속신앙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을 때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모두 이러한 사실을 의심없이 잘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같은 고사가 소위 童話화된 이후에 이런 기적이 연말에 일어난다는(줄거리) 부분은 점차 그 의의가 퇴색되어 갔던 것이다. ◆

최근중국동향

종교

* 중국의 가정교회의 지도자인 마이 푸렌씨는 두 명의 미하원의원이 그의 석방을 중국 당국에 청원한 후인 지난 4일에 드디어 석방되었다. 마이 푸렌씨는 지난 83년 9월에 구속되어 불법적인 해외교류와 성서를 배포한 혐의로 수감되었다. 그는 86년에 재판에 회부되어 13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기독교연합신문 91.6.23)

* 한국의 중국선교는 중국당국으로부터 “해외종교세력의 침투”로 간주되고 있어 적잖은 충격과 함께 선교방법의 ‘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작년 연말 고위층에 배포된 내부문서에서 중국 당국이 침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류는 △복음방송전파 △학술교류를 통한 전도활동 △공장·학교·병원 건설자금제공 명목의 선교지점 확보 △여행 친척 방문을 통한 불법 종교활동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에 대한 현금·경비제공 명목을 통한 분열활동 △야지신학교 등 불법적인 신학생 양육 훈련 △우편이나 서신, 휴대 등의 방법을 통한 종교 선전품 살포행위 △소수민족에 대한 반동선전활동(조선족 교포선교포함) 등으로 지금까지의 한국교회 중국선교방법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기독교연합신문 91.7.7)

* 최근 중국정부가 조선족에 대한 종교탄압의 한 방편으로 북경 강화시교회당에서의 조선어예배를 불허함으로써 조선족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조선족 기독교인들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 「북경시 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조선어예배 폐쇄조치는 소수민족종교정책에 위배된 처사로서 4백만여 명의 조선족신자들을 무시한 일방적 횡포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일보 91.7.6, 한국교회신문 91.8.4)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맹인선교후원회가 운영하는 안과전문 선교병원인 실로암안과병원이 국내 최초로 중국 연변에 있는 안이비인후과병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개안수술 기술교육 및 의료진 교류를 추진한다. 실로암안과병원 무료진료팀은 6월 19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 동안 중국 연길에서 교포 3백52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32명에게 안수술을 통해 광명을 찾아주었다. (국민일보 91.7.24, 크리스찬신문 91.7.27)

* 중국 선교를 목적으로 한 한국교회의 중국방문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교회의 성도와 교역자들이 중국을 방문해 과도하게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뜻을 정부측에 전달해왔다고 밝히고 전국 교회에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91.8.17)

*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 왕명도 목사가 91세의 일기로 지난 7월 28일 오전 9시 상해의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7월 30일 상해에서 장례식이 거행됐다.

그의 생애는 참으로 역경으로 점철된 고난의 길이었다. 중국 문화혁명 당시 많은 목회자들이 감금되어가고 있을 때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않

겠노라고 중국 당국에 서약을 하고 18개월의 징역생활을 청산하고 나왔지만, 변질된 목사의 설교는 더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옛 성도들은 외면했다. 그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내적인 갈등이었다.

왕명도목사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 관리들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말을 취소한다고 진술하고 22년 10개월의 감옥생활을 다시 시작한다. 그곳에 있는 동안 재소자들에게 전도하며, 세례도 주었고, 밥을 몽쳐 놓았다가 떡을 삼아 성찬식을 하기도 했다.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잊지 아니하였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했으며,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살아 기독교인의 모범된 자세를 잃지 않았다.

또한 몇몇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왕명도목사는 삼자운동의 기본원칙을 세웠던 사람중의 한 사람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한편 부인 데브라 왕여사도 예수교인이라는 이유로 15년간 감옥에 갇혀있었는데 유족으로는 부인과 1남, 손녀가 있다. (한국교회신문 91.8.18)

정 치

* 美國에 체류중 日本을 방문한 中國의 反체제 물리학자 方勵之씨는 23일 「중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세계 흐름은 민주화-개방화를 향하고 있어 중국은 반드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91.6.25)

* 中國共産黨이 7월 1일 창당 70주년을 맞았다. 中國 전역에서는 이번 기념일을 맞아 지난달 15일부터 각종 학술세미나와 좌담회 기념영화상영 등이 잇따라 열리고 「중국공산당70주년」, 「鄧小平

의 평생과 사상연구 총서」 등 기념서적들이 발간되었다. (동아일보 91.7.1)

* 중국공산당 총서기 江澤民은 1일 세계사회주의의 쇠퇴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결코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江은 「中國에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것은 공산당의 지배를 종식시키자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91.7.2)

* 중국동부 山東省의 약 10만 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광산, 공장, 농장 등지로 파견됐다고 중국 공산당기관지 光明일보가 7일 보도함으로써 毛澤東시대 이래 쓸모없는 정책으로 치부되어 온 下放정책이 최근 되살아났음을 실증했다.

(조선일보 91.7.8)

* 올가을 유엔총회기간중 南北韓의 유엔가입이 이루어지면 盧泰愚대통령과 中國공산당 총서기 江澤民은 「韓國 蘇聯 국교수립 유형」에 따라 유엔에서 한국과 중국간에 국교수립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홍콩의 일간지 快報가 대만의 中國時報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동아일보 91.7.14)

* 중국 최고지도자 鄧小平은 趙紫陽 前黨총서기에게 天安門 민주화시위사태에 대한 과오를 간접 시인하고 공식으로 복귀할 것을 타진했으나 趙紫陽은 이를 거절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紙가 15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1.7.16)

* 中國공산당은 중앙과 지방당간부들에게 최근 내려보낸 한 내부문서에서 蘇聯이 올가을 자본주의 체제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것으로 사우스 차이

나 모닝 포스트紙가 16일 보도했다.
(동아일보 91.7.16)

* 中國은 한반도가 독일처럼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형태로 통일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우방인 북한이 무너지고 한반도가 한국의 주도하에 통일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한반도내에서 2개국가 2개체제의 존재를 기정사실화, 분단을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도록 북한측에 압력을 가했다고 홍콩의 시사월간지 爭鳴이 2일 보도했다.
(조선, 중앙일보 91.8.3)

* 中國은 전세계적인 공산주의체제 몰락 추세에 대항하여 中國 사회주의체제의 고립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新社會主義聯盟」의 결성을 시도하고 있으며 베트남 및 쿠바와 정치관계를 재개하려는 움직임과 北韓에 「一國兩府」(1국2정부) 통일정책에 입각한 유엔가입을 권고한 것도 이같은 신사회주의연맹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홍콩의 臺灣系 신문인 星島日報가 6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1.8.7)

* 中國은 첨단무기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 1백만 명의 병력을 감축하고 있다고 중국인민해방군의 遲浩田총참모장이 13일 발간된 蘇聯軍 기관지 赤星과의 회견에서 밝혔다.
(국민, 중앙일보 91.8.14)

경 제

* 中國은 금융체제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남부 경제특구인 심천에 3일 증권거래소를 개설했다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들이 보도했다.
(조선일보 91.7.5)

* 사회주의국가 中國에 백만장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私營기업이 허용된 뒤 최근 10여 년 동안에 각업종에서 사영기업을 경영하는 업주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학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자본가 계급이 다시 출현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동아일보 91.7.5)

* 한국과 중국은 각종 박람회와 전시회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정식국호를 서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양국간의 經協이 좀더 활기를 띠고 국교수립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민일보 91.7.5, 경향신문 91.7.6)

* 對중국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값싼 중국산 제품의 무차별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對중국 무역수지적자가 갈수록 확대되고 국내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국민일보 91.7.8)

* 중국은 금년 상반기에 36억3천만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고 중국관영 新華통신이 7일 보도했다. (조선일보 91.7.9)

* 鄭鴻業 中國국제상회 회장은 17일 중국관영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국제상회와 한국의 무역진흥공사는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 등 3개 협정체결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으며 올해 안에 이들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선, 동아일보 91.7.19)

* 中國은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향한 새로운 조처로 평가되는 무역 및 투자보호 협정들에 관한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 했다고 공식 소식통들이 17일 말했다. (국민일보 91.7.19)

* 재계에 따르면 국내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은 최근 韓中무역대표부개설과 함께 양국 조기국고 수립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사망 확대와 신규사업의 투자타당성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동아일보 91.7.22)

* 중국경제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88년과 89년에 물가가 40%까지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인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강력한 긴축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작년 물가상승률을 2.1%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으나 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을 면치 못했다.
(동아일보 91.7.24)

* 연내에 韓-中-蘇접경지역인 豆滿江유역 中國혼춘에 南北韓·蘇聯·中國의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공동시장이 생긴다.

26일 中國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鄭周永 現代그룹 명예회장은 中國 田紀雲부총리로부터 이같은 中國정부의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91.7.27)

* 中國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0년까지 계획상품 경제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개혁 10개년계획 요강」을 마련, 중앙 각관청과 지방관계기관에 통고했다고 日本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중앙일보 91.8.2)

* 국내 대기업들이 北韓 및 中國이 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豆滿江유역의 준설공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현재 활발히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91.8.10)

* 이르면 내년 중 中國 山東省 또는 발해만 연안의 1~2개 지역에 우리나라의 전용공단개발이 시작된다. 전용공단이 들어서는 곳은 天津·靑島이다. (경향신문 91.8.15)

* 예로부터 茶문화가 발달했던 中國에서 요즘 미네랄워터 마시는 유행이 번지기 시작, 미네랄워터의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 28일 보도. (조선일보 91.6.29)

* 작년 한해 中國전역에서 검거된 유괴나 인신매매관련 범죄자는 5만4천여 명, 경찰에 구출된 부녀자만도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녀자 유괴와 인신매매가 중국의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요즘은 대규모 유괴전문 조직이 생겨나고, 전국적인 인신매매 조직과 연결해 분업화 되면서 도시나 농촌을 가리지 않고 창궐하고 있다. (한국일보 91.7.8)

* 中國당국은 지난 16일 揚子江주변 18개省에 발생한 수재 피해에 대해 「수재민 2억 명, 사망자 1천7백 명, 가옥파손·침수 8백12만 채, 직접경제손실 3백98억 元(약75억달러)」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중앙일보 91.7.22)

* 부산과 상해-대련-청도-천진 등 중국의 4개항구를 잇는 韓中정기컨테이너항로가 다음달 2일 개설된다. (조선일보 91.7.31)

* 중국의 조선족 교포들이 한국의 선원으로 대거 활용될 예정이다.

해운항만청은 2일 「최근 갈수록 기피하고 있는 외항선원을 충원하기 위해 黑龍江省-吉林省-遼寧省등 중국 東北3省에 거주하는 조선족 교포를 도입하는 문제가 구체화돼 정부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91. 8. 3)



宗教消息

공안원이 河北지하교회 사람들을 대거 체포함

대만의 《敎友生活周刊》의 보도에 따르면 하북성의 일부 지하교회의 수녀원 초급반 학생들과 신학원 학생들이 작년 성탄절에 공안원의 체포시에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리고 정주(定州)의 수녀원과 신학원의 원장도 당국에 의해 일개월여 동안을 구금당한 뒤 인민폐 7,000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공안원은 또 보정(保定)지역의 정흥(定興), 래주(徠州) 및 서수(徐水) 등등의 현에서 천주교단체에 대해 수사했다. 수사대상 지역에는 이현(易縣)에 자리잡고 있는 한 시골마을의 예수성심수회(耶穌聖心修會)의 총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안원들은 수녀들이 해산하기를 강요하였고 그 중 몇 명의 수녀들은 현 정부로 끌려가 “학습반”에 참가하였다. 보정(保定)경내의 정부가 승인하는 공개교회에 속하지 않는 다는 신학원과 초급수녀원은 이미 쫓겨나서 해산되었다.

이밖에 보정시의 교우지도자인 시국휘(施國輝)와 장대봉(張大鵬) 및 그의 아들 장국언(張國彦)은 당국에 의해 작년 12월 이래 구금상태이다. 그리고 작년 12월중에 정주(定州), 고양(高陽), 청원(淸苑), 및 서수(徐水) 등의 현에서는 11명의 신부가 구금당했다. 정흥(定興), 고양(高陽), 래주(徠州), 청원(淸苑), 이(易)와 서수(徐水) 등현의 천주교 지도자들은 학습반에 참가해야 만 했으며, 《하북성정부의 종교조례 실행에 관한 명령(河北省政府宗教實行條例的命令)》을 공부해야만 했다. 학습반은 교우와 로마교황청이 분리할 것과 교황의 지도를 따르지 말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반드시 이 명령을 준행하도록 지시했다. (“Asia Focus” 1991.3.20; 《公敎報》 1991.4.5)

미국의원이 이봉(李鵬)에게 수감된 신도 77명의 명단을 건네 줌

두명의 미국의원은 중공이 허가를 거치지 않은 종교활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77명의 기독교 및 천주교지도자와 신도를 구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두명의 의원은 뉴저지아주의 스미스와 버지니아주의 올프로 중국총리 이봉을 회견할 때 바티칸이 임명한 22명의 주교를 포함하는 77명의 명단을 건네 주었다. 스미스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봉총리가 이 무고한 사람들을 석방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왜냐하면 종교신앙의 자유는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인권으로 인권존중을 표방하는 어떠한 사회에서도 신앙이 최악시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스미스는 이봉이 이미 이 명단을 접수하였으며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음을 밝혔다. 이 명단 가운데 60인은 천주교인이며 17인은 기독교인으로 그 중의 몇 사람은 작년 연말과 금년초에 체포되었으며 그 나머지는 투옥된지 이미 10년이나 되었다. (《星島日報》 1990.3.29)

북경과 상해의 신도들이 부활절을 경축함

수천명에 달하는 북경사람들이 3월 31일에 부활절 종교의식에 참여하였다. 북경남당(南堂) 천주교성모마리아성명회의 라틴어미사에 참가했던 3천명의 신도 중의 한 대학생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맑스주의를 신봉하지 않으며 종교는 우리들 중의 많은 사람들의 공허를 채워 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중의 다른 청년은 라틴어로 미사를 드릴 때 알아듣는 사람은 매우 적었으나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정신적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상해시 지역에서는 11개의 예배당과 22개의 처소에서 “구주부활주일예배”를 드렸는데 상해시의 기독교신도 및 천주교 신도 22만명이

집회에 참석하였다. 널리 알려져 있는 국제예배당에서는 오전에 두 차례의 예배를 드렸으며 심이번(沈以藩)주교와 양안정(楊安鼎)목사가 말씀을 증거하였다. 서가회(徐家匯)천주교회당에서는 새벽 다섯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미사를 드렸다. 오전에 거행된 네 차례의 미사에는 모두 5,6천 명이 참가했다.

(《星島日報》, 《文匯報》 1991.4.1)

나관중(羅冠宗)의 정협(政協)에서의 발언

삼자회의 부주석인 나관중은 전국정협 제7기 4차회의에서 종교신앙자유정책을 진지하게 관철집행해야 하며 단순하고 강제적인 수단으로써 종교문제를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나관중이 다른 다섯 명의 종교계정협위원을 대표하여 공동명의로 발언한 것이다.

나관중은 정부의 종교사무에 대한 관리는 종교관련법률,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철, 행정관리와 감독의 실시를 가리킨다고 밝히고 종교사무에 대한 관리는 종교활동을 법의 테두리안에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지 정상적인 종교활동과 종교단체의 내부사무를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의 종교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 종교신앙의 자유정책은 반드시 진지하게 관철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상호간의 사상과 신앙을 존중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국내의 많은 곳에서 일부 종교활동장소들이 아직도 기독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회의내용의 전달을 통해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러한 난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文匯報》 1991.4.4: “Asia Focus” 1991.4.24: 《公教報》 1991.5.3)

중국교회는 동구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중국천주교주교단 대표단단장이자, 애국회주석

이며 주촌(周村) 및 제남(濟南)의 주교인 종회덕(宗懷德)은 일부지하교회의 천주교인들이 동구의 민주화에 편승하여 국내에서 “불법활동”을 기도하고 군중이 정부를 반대하도록 선동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하북성의 어떤 사람은 동구의 공산당정권이 이미 무너졌으니 중국도 곧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기까지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한 정부관리는 북방주교회의석상에서 이미 은퇴한, 교황청이 임명한 보정(保定)교구의 법학염(范學淹) 주교가 “내일의 중국은 오늘의 동구와 마찬가지로 될 것이며 동구에서 공산당정권이 무너졌는데 중국의 공산당정권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고 한 말을 인용하였다.

중국공산당 강택민 총서기와 이붕 총리는 최근에 또 다시 “적대세력의 침투를 방지하라”고 경고하였다. 정부당국은 교회가 목하 벌어지고 있는 동구의 정치와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중국에서의 공산당의 지위를 최종적으로 동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Asia Focus” 1991.4.10: 《公教報》 1991.4.19)

티벳에 대한 종교정책 집행

티벳문제를 연구하는 중국전문가의 언급에 따르면 1951년의 티벳의 평화적 해방 이래로 중공은 줄곧 종교신앙의 자유정책을 실시해 왔다. 현재 티벳에서 수리중이거나 개방된 사원은 모두 1400여 곳, 승려들은 대략 34,000명으로 승려나 속인들의 정상적인 종교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최근에 중공은 몇 차례에 걸쳐 4,300만원을 내어 사원 수리에 사용하게 했다. 1989년부터 중공은 또 4,000만원을 내어 오랫동안 수리하지 못했던 포탈라궁을 중점적으로 수리하였다.

이밖에 티벳의 불교교육과 불교연구 역시 재개되었다. 티벳은 불교대학을 열었으며 티벳불교협회는 《西藏佛教》라는 티벳어 간행물을 내었다. 포탈라궁은 대대적인 경서정리를 하였는데 그 중 진귀한 팔보인 《丹珠爾》은 현재 조직되고 있는

민간 서법가들에 의해 베껴지고 있다.

(《文匯報》 1991. 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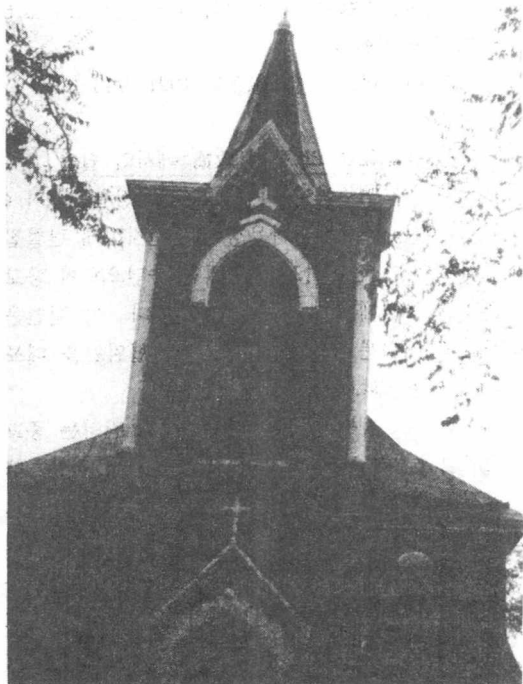
상해 기독교 발전 개황

상해시 기독교교무위원회 주임이자 화동신학원 원장인 손언리(孫彦理)주교는 상해시 정협대회에서 종교계를 대표하여 발언하면서 상해의 기독교 발전추세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손주교는 5,6십년대에는 간섭이 너무 많고 운동이 너무 많아서 신도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고 문혁 때에는 종교활동이 중단되고 예배당이 폐쇄되었으며 신도들의 활동이 지하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혁개방후에는 예배당이 점차로 재개방되고 교회재산도 잇달아 회수되었으며 또한 여러 교회당이 새로 건축되었으며 화동신학원이 개설되었는데 현재는 상해만 해도 24곳의 교회당이 있으며 55곳의 처소가 있고 기독교인은 이미 10만 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손주교는 현재 기독교는 “3자”에서만 그치지않고 더욱이 “治好, 傳好, 養好(자치, 자전, 자양이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 역주)”의 “三好”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손주교는 종교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을 분류하면서 말하기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포함되는데 동기도 각각 다르다. 은퇴한 사람, 나이많은 사람, 물질생활은 충족되나 심령상의 불만족으로 정신적으로 의지할 데를 찾는 사람 등이 있으며 개혁개방에 따라 젊은이와 대학생신도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심지어 각 교당마다 매년 수백명의 수세자가 있는데 시를 통틀어서는 매년 3,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에는 적지않은 청년남녀가 찾아와 신앙의 대상을 구하거나 교회를 통해서 출국을 모색한다.

손주교는 마지막으로 개혁개방에 따라서 사회에는 종교프로그램의 상업화와 세속화의 추세가 나타나 예를 들면 성탄절에는 성탄파티와 올라 잇무도회 등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성탄절이 먹

고 마시며 노는 것으로 여기기까지 해 종교의 의의를 상실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상업적인 시각으로 성탄절을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文匯報》 1991. 5. 2)



(중국 하얼빈교회 전경)

산두(汕頭)시 가정교회 지도자가 석방됨

가정교회 지도자 맥부인(麥賦人)은 70여세로 4월초에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이에 앞서 두 명의 미국국회의원은 그에 대한 문건과 76명의 수감된 기독교인의 명단을 중국총리 이붕 및 기타 정부관리에게 건네준 적이 있다. 맥은 83년 9월에 체포된 세 명의 가정교회지도자 중의 하나이다. 죄명은 위법활동(呼喊派활동; 위트니스계열로 83년 전후 많은 핍박을 당했음; 역주)과 외국인 접촉(성경전달)이다. 맥은 광둥성산두시로 부터 86년에 재판을 받고 12년에서 13년형을 받았다.

맥과 그의 가족들은 맥의 석방을 모두 의외로 여겼다.

미국국회의원 스미드는 맥의 석방은 복경을 위한 하나의 서광이라고 말하고 중국의 관원이 90년대 국제관계의 기초에 있어 인권의 우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은 머지 않아 모든 종교법에 대한 석방이 종교의 이익에 영합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 Network International”1990.5.7)

광둥성종교상황

광둥성기협(基協)주석은 4월11일부터 16일까지의 홍콩방문 기간 동안 광둥성교회의 주요문제는 일군의 부족이라고 밝히고 광둥성에는 현재 목사가 89명, 봉사자가 200명이 넘으나 목사의 나이는 대다수가 70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나 많은 목사와 젊은 목사간에는 세대차의 문제가 존재하며 광주시의 7곳의 교회는 저마다 이어져 내려오는 교파의 전통이 있는데 젊은 신도는 경험에 부족하기 때문에 교파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며,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도 전통에 근거하거나 거리의 원근으로 정한다고 한다.

그는 또 광둥의 신학원에는 모두 64명의 학생이 있는데 반은 여학생이고 1년 내지 2년제 과정이며 매주 23시간이 넘는 수업을 하는데 신학과 교목과정 외에도 중국어, 영어, 음악, 위생 및 애국교육과 역사, 정치 등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학생이 소속된 교회에서는 매월 인민폐 100원을 학생의 경비로 지급하고 있다.

(“Asia Focus” 1991.5.8)

수도생이 제일 많은 섬서성(陝西省)

1991년초 중국각지의 수도원의 책임자들의 언급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인가한 수도원에는 신학철학을 공부하는 수도생들이 약 8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섬서성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여

160인에 달하며 2위는 하북성으로 대략 1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이밖에 서안(西安)시 당방(糖坊)가의 서안수도원이 이미 준공되었는데 이 수도원은 감숙(甘肅), 영하(寧夏), 청해(淸海), 섬서(陝西), 신강(新疆) 등의 다섯 성이 함께 설립한 것이다. 서안교구는 현재 15명의 신부와 17,500명의 신도가 있는데 그 중의 4,000명은 서안시에 거주하고 있다. (《鼎》 62期: “Asia Focus” 1991.5.8;

《公教報》 1991.5.10)

중공은 티벳과 신강성의 종교사무에 대해 간섭치 않음

5월8일자 《人民日報》해외판은 중국인권상황에 대한 해외독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티벳과 신강성의 종교사무와 신도들의 종교활동에 대해 간섭이나 제한을 가한 적이 없으며 종교신앙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 신문은 티벳의 소수의 승려가 지방사법기관에 의해서 체포, 구금되고 아울러 법에 따라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중국을 분열하는 위법활동에 참여하여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지 그들이 종교를 믿기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신강성에는 현재 크고 작은 청진사(淸眞寺)가 이만여 곳 있는데 이는 전국 각 종교의 사원을 모두 합친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 신강성은 이밖에 또 코란학교를 개설했다. 중국은 한 마을에 여러 사원이 생기는 것을 낭비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신강자치구정부는 1988년 11월 《신강위구르 자치구종교활동장소잡정조례》를 반포하여 새로 건축되는 청진사와 코란학교에 대하여는 반드시 설립전에 성정부에 등기하고 비준을 얻도록 하였다. 人民日報는 소수인이 비준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건립하거나 수리하는 새 사원과 코란학교에 대하여 이를 중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사리에 맞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文匯報》 1991.5.9)

(연구부제공)

중국어로 찬양을!

來讚美主 Come Bless the Lord

UNKNOWN

E^b B^b13 E^b A^b/B^b E^b Gm7 Cm7 Fm7

0 3 3 . 2 | 1 - - - | 1 1 7 1 | 2 - - - |

神的僕人 來讚美主，

B7 Fm7 B7 A^b/B^b B7 E^b E^bmaj7

0 4 4 . 3 | 2 - - - | 2 2 1 2 | 3 - 0 0 |

夜間站在 神的殿中，

E^b6 B7 E^b E7 B^bm7 E^b7 A^b A^b/E^b A^bm D⁹

0 5 5 . 4 | 3 - - - | 0 3 2 3 | 4 - - - | 4 4 1 . 2 |

當向聖所 舉起雙手， 來讚美

E^b/B^b B7 E^b A^b E^b B^b13 E^b

3 - - - | 0 5 7 2 | 1 - - - | 1 3 3 . 2 | 1 - - - ||

主， 來讚美主。 神的僕主。

8va

우리말 가사:

찬송하라 여호와와 그의 종들이 주님집에 서있는 자들이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코란이 새벽을 깨우는 나라

이 인 수

2월~3월에 걸친 약 한 달 동안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여행기를 이 지면에서 다 말할 수는 없다. 많은 사건과 문제와 경험을 맛보았던 그 시간들을 다시금 회상해 보며 동남아국가의 특성들과 현지 주민의 삶의 모습과 내 여행길을 동행해주신 하나님에 대해 잠깐 회고하기로 한다.

혼자 여행하기로 결정하고 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스러운 눈길로 그만두기를 권고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겁도 없이 여자 혼자서 감히, 하는 얼굴들이었다. 그 때 내 안에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확신이 생겼다. 회교권 지역의 한국선교사들과 그 지역교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한국과 동일한 시간에 만들었을 그 이국의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난 결행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김포공항을 떠나며 드린 나의 기도는 단 한 마디 뿐이었다.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9시간 반의 비행 끝에 내린 곳은 싱가포르 찬기공항이었다. 밤 10시가 넘어 내린 그곳은 무

더위와 낮선지역이란 사실 때문이었는지 나의 담대했던 마음을 녹아들게 만들며 슬며시 불안이 밀려 들었다. 그 때 내 눈에 들어온 광고보드에 국내 회사인 삼성의 광고 네온사인이 보였다. 그 순간의 그 안도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람도 아닌 일개 사물이 주는 위로를 말이다.

싱가폴은 80퍼센트의 중국계와 말레이계, 인도계, 인도네시아계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복합민족으로 언어는 영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루고 살고 있음을 시사하는 농담 중의 하나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내야 한다'고 말할 정도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

싱가폴 국가정책인 "Clean(깨끗함) and Green (푸르름)"에 맞추어 도시는 아름답고, 깨끗했고 시민들은 친절했다. MRT라는 지하철 내부엔 지하도와 지하철에선 음식, 음료, 담배를 금한다는 안내문과 동시에, 발견되었을 때는 싱가포르 달러 500불(약 225,000원)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경고문도 함께 붙어

있었다. 그 때문인지 어디를 가도, 봐도 정갈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다.

거리 곳곳엔 많은 교회가 보였지만 그곳은 늘 문이 닫혀 있었다. 주일에만 문을 열기 때문이었다. 그곳을 찾는 시민들도 그다지 많지 않은 모양이었다. 주민의 대부분을 이루는 사람들이 중국계이기 때문이다. 거리에 교회가 많았던 것은 영국의 식민지로 200여 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이 필요에 의해 세웠던 것인 모양으로 이름도 '성 조지 아교회' 식으로 불리워지고 있었다.

싱가폴 음식이 입에 맞질 않아서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나 켄터키 후라이드치킨점을 이용하곤 했는데, 그곳에서 서빙을 해주는 사람은 노인이 많았고 장애자들도 있었다. 처음엔 젊은 사람이 앉아서 서비스를 받기가 미안해 사양했더니 자신의 일이라며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닌가, 즐겁게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인이나 장애자라도 원할 땐 언제나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말이 왜 그렇게 부러웠는지 모른다.

싱가폴 숙소에서 아주 우연히

세계일주를 하고 있는 한국인 청년 한 명을 만났다. 햇볕에 검게 그을은 때문인지 아무도 그를 한국인으로 봐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직장도 그만 둔 채 6개월 계획으로 세계일주를 하고 있다는 그는 대학시절에 네비게이트 훈련을 받은 형제여서 싱가포르 시내를 함께 여행하며 좋은 교제를 가질 수 있었다.

싱가폴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까지는 기차로 국경을 넘어 갔다. 유럽의 유레일 철도처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을 연결하는 국제열차였다. 밤새도록 달려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을 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영국 궁전풍의 기차역사를 나오는데 코란경을 낭독하는 소리가 낭랑하게 울리며 온 도시를 깨우고 있었다. 코란 읽는 소리가 아침, 저녁 기도시간을 알리는 소리라는 걸 며칠 지내면서 알게 되었는데 처음 듣는 순간의 그 감흥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다.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라면 아마도 그 코란소리에 매료되었을 것이 틀림없을 만큼 아름답고 청아한 소리였다.

처음 숙소는 한나선교회의 말레이지부인 이영설 선교사님 덕이었다. 한국에서 미리 연락을 드렸기도 했지만 낯선 여행자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두 분의 성



(싱가폴 센토사섬에서)

품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 덕에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형제가 묵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보기 전에 나에 대해 듣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형제와 선교사님은 그 전부터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선교관에서 묵었던 것이고 나는 처음 여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첫 며칠만 묵기로 미리 연락을 드렸던 것이다. 마침 중국인 선교사 방휘가 함께 묵고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눴다.

다음날 그 형제는 인도를 향해 쿠알라룸푸르를 떠났고, 난 말레이시아 정글지역을 여행하기 위해 선교사님 덕을 떠났다. 혼자서 정글지역으로 들어간다

니가 처음에는 말리시더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두려워하겠냐며 오히려 잘 다녀오라고까지 하셨다.

3등 열차로 쿠알라룸푸르를 떠나는 내 마음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기차 창을 통해 펼쳐지는 거대한 팜오일 농장과 고무농장, 즐비한 열대과일나무들이 내 시야를 압도하고 있었다.

기차안은 세계 인종시장을 방불케하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각 국에서 모여든 배낭족들과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말레이계, 인도계, 중국계, 인도네시아계 주민들이 각기 다른 자신들의 언어로 떠들어대고 있었다. 인도계는 인도의 전통의상을 입고 있었고, 말레이계인

회교도 여자들은 차도르를 머리에 쓰고 전통의상을 입고 있기도 했다. 싱가포르와 달리 검은 피부를 가진 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와 마주칠 때마다, 그들의 호기심어린 눈길을 피하느라 고심해야 했다. 그러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위협하는 그런 시선은 아니었고, 단지 따뜻한 관심이었다고 하는게 옳을 것 같다.

말레이시아 해안과 정글을 여행하면서 나 역시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기도를 아주 여러 차례 드리게 되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자연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말레이시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원시상태 그대로의 자연이 그곳에 있었다. 정글에 사는 한 여인은 내가 펼쳐주는 세계지도를 보면서, 처음 보는 물건이라고 말해, 한참을 설명해야만 했던 경험을 하기도 했다.

한 바닷가 마을에선 매일 아침마다 아침용변을 바다에 나와서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집엔 따로 화장실이라는 게 없는 정말 원시상태의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을 보며, 그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창조하신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연민의 마음을 갖기도 했다.

회교가 국교인 말레이시아에선 성경을 들고 전도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게 금지되어 있었지만 기차에서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성경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나님(God)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인 '알라'로 이해하고 말았다.

말레이어로 '잠퐁'이라 불리는 정글마을에선 하루에 말레이 10불(약 3,000원)을 주면 민박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가격엔 아침, 저녁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게 며칠씩 함께 지내는 동안 그들이 그들의 종교인 회교 율법을 얼마나 엄격히 준수하는가를 볼 수 있었고, 그 종교 율법의 하나인 집 밖에서의 노출 금지 때문에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지도 모르는 해변에서 평생 한 번도 수영하지 않는 것을 보며 한편으론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한편으론 그들의 신의 법에 대한 경외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도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이 얼마나 감사한가하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태국 국경근처 마을에 갔다가 풍토병을 얻어 온 몸에 종기가 돌아서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아픔과 가려움에 시달리며 읊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도 했다. 이 풍토병은

귀국해서도 몇 달간 계속돼서 고생을 해야 했다.

한 달의 여행을 마치고 김포 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닷없이 쏟아지던 눈물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만 뜨거운 감사가 있었을 뿐이었다. 공항엔 비행기 착륙이 어려울 만큼 안개가 끼어있어서 위기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조종사에게 길을 잃지말도록 지시해주던 관제탑의 불빛을 보며 저 불빛이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의 모습인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불과 한 달이란 짧은 기간 동안 내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를 다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곳에서 만났던 수 많은 현지인들을 보며 특히 회교와 불교가 강한 그들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 

(본선교회 회원)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 활동상황

☐방송대☐

서울지역

91년 1학기를 마무리하는 신앙강좌를 1학년 대표인 유영구 전도사를 모시고 “창조와 구원”이라는 주제 아래 마친 것의 의미가 있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을 맞이하여 계절의 나태함을 극복하기 위해 일꾼을 보강키로 하고 각 부에 차장제를 신설하여 연속성 있는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편집차장: 김성복, 봉사차장: 이종호, 학습차장: 이효경, 음악차장: 박은숙)

91년도 임원진이 출발하자마자 회지발간을 위한 광고를 수십차례 하였지만 회원들의 무관심과 주관부서인 편집부장의 공백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편집부장으로 주희정 자매가 선출되면서 활력을 찾게 되어, 편집부를 맡은지 1주일만에 회지의 편집계획 및 편집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연 2회 발간기로 결정하고 실무에 착수했다. 새로운 소식과 더불어 휴간되었던 회지를 새롭게 단장하여 2학기 개강하는 날에는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 가슴이 설레기만 한다. 이를 계기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지에 관심을 기울려 12월에 2호가 발간될 때는 회원의 글로 가득차기를 바란다.

또한 분반공부를 통하여 간간이 익혀둔 실력을 표출하는 학습부 주관 중국어 성구암송대회를 종강예배 때 가짐으로 의미를 더하여 주었다. 각 반별로 범위를 정하여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주고 중국어를 처음 대하는 믿음반, 2-3학년의 소망반, 4-5학년의 사랑반, 모두 36명이 신청하여 15명가량이 기량을 발휘하였다. 각 반 최우수상은 믿음반에 최성은, 소망반에 한중숙, 사랑반에 김순임이 성의있는 부상을 각각 받았다.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 연합사업으로 찬양발표회에 이어 하기수련회를 중국어문선교회 주관으로 8/14-15(1박2일) 경기도 마석 새터교회에서 수련의 장을 펼친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심신의 단련과 중국선교의 사명을 인식하고 성경반의 단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8월 20일 개강예배를 맞이하면서 건강미가 넘치는 얼굴을 마음 속에 그려보며 그날을 기다려 본다.

인천지역

인천지역 성경반은 6월 들어 소수이지만 고른 출석율을 보이고 모임도 안정되어가고 있다. 직장과 학과공부, 성경반 모임 등등 몸을 몇 개로 쪼개고 싶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공부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주안도 간사의 중국여행으로 3주 동안 선배를 중심으로 모임을 가져오다가 첫학기 시험을 앞둔 1학년들의 부담과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7월 둘째 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가서 8월 둘째 주에 개강할 예정이다. 시험과 휴가가 끝나면 개강과 함께, 언제나 빛진 마음으로 부담을 느껴오던 방한 중국교포들에 대한 전도를 계획하고 있다. 낮시간을 낼 수 있는 자매들이 몇 있어서 인천국제선 터미널과 하인천역에서 입국하는 교포들에게 중국어문선교회의 교포초청잔치와 연결할 계획으로 있다.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과 함께 학년별로 분반하여 공부할 예정이며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고 새 힘을 얻어 2학기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부산지역

2개월 전 일곱 명이 모여 첫예배를 드림으로 새로 시작된 부산지역 중국어성경반은 이제 두 배로 늘어난 열네 명이 되었다. 또 우리가 얼마씩 거두는 월정회비 중 1/5을 선교헌금으로 드릴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여럿이 마음과 힘을 합쳐 주님의 일에 동참케 됨을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 우리 부

산지역은 부산지역歌을 택하여 연습 중에 있다. 우리가 배운 중국어 찬양을 십분 활용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가슴 벅찬지!

한 자매는 그녀가 봉사하는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중국어 찬양을 가르쳐주어 예배 특송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찍은 사진을 가져와서 싱글병글 하다. 1절은 중국어, 2절은 영어, 3절은 한국어로 했다면서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한 웨슬레의 말처럼 우리는 물론이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시야를 넓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선교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희들은 중국어성경반의 모임이 그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기 학교로, 직장으로, 교회로, 사회로 활동의 장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 여름방학에는 마석에서 있을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 수련회에서 좋은 만남을 기대하고 또 중국인 목사님도 초빙해서 성경강해도 가져볼 계획으로 기도 중에 있다.

날씨가 점점 더 무더워 지는데 우리도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로 뜨거워지기를 원한다.

☐서울대☐

이따금 쏟아붓는 장마비도 그렇게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무더운 여름조차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저희 서울대 중국어성경반은 지난

6월 18일에 종강하고 지금은 각자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고 있다. 김성곤 지도교사는 지난 7월초 대만에 연수차 가서 8월초에 돌아왔으며, 김세훈 형제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간호하고 있는 중이므로 이 지면을 빌어서 빨리 완쾌되기를 빈다. 1학년 형제, 자매들(박신영, 당윤희, 김병규, 홍종혁)은 중국복음화의 일선에 나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이 무더운 여름을 식히면서 중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다.

문창운 형제는 소식이 잘 전해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최형섭 형제는 바둑도 두고, 책도 읽으면서 소일하고 있단다. 방학기간 동안 열심히 살다가 승리한 모습으로 개학하여 다시 만나길 바란다.

☐인하대☐

인하대의 모임이 당분간 중단되었다. 중간고사와 중국어 성경반을 돕던 주안도 간사의 중국방문과 방학으로 인하여 몇몇 형제자매들은 영동포종화교회에서 중국어 성경공부를 계속하였고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자신들의 삶에 열중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몇 차례 다시 모이고자 애썼으나 이뤄지지 못하고 인하대가 개강하는 이후인 8월 22일에 개강하려고 한다.

2학기 모임도 역시 모든 학년이 다 학교에 나오는 날인 매주 목요일 5:30분부터 7:30분까지 성광교회에서 가질 예정이다. 1부에는 1학과 마찬가지로 요

한일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2부에는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서 공부할 것이다. 초급은 중국어를 모르거나 기초가 약한 사람들이 공부하며 중급은 한경직 목사가 쓴 "기독교란 무엇인가?" 중국어판을 교제로 삼아 자유토론을 중심으로 공부하려고 한다.

이 성경반을 위해서는 상당기간 중단된 모임이 더욱 활기차게 전개되길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라고 4학년인 회장 이민종군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려주시길 바란다. 또 성경반을 거쳐갔던 형제자매는 적지 않으나 꾸준히 나오는 형제자매가 적은 사정이 개선되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여전히 1학년이 부족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1~2학년이 중국어로 성경을 배워서 14억 중국을 향한 비전이 생겨날 수 있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를 지도해 주실 지도교수님과 훌륭한 선생님도 더 보내주시고 준비된 자들을 불러 주시길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길 바란다. 1학기에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성광교회와 양치호 목사님의 사역이 더욱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바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총무부

8월 4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틀간 중국어문선교회 주최로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과 연합하여 제2회 하기수련회를 남양주군 화도면 새터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가졌다. 참가한 인원은 약 50여 명이며 참가한 대학은 서울대(2명), 인하대(1명), 방송대는 서울지역을 비롯하여 부산 지역(3명), 인천지역(3명)이 참석하였고, 아직 중국어성경반이 조직되지 않은 광주지역(1명), 경기지역(2명)도 함께 참석하였다.

또한 수련회 때 본 선교회 협력선교사로 9월 초에 파송되는 정선영 선교사의 파송예배를 드렸다.

교육부

7월 1일부터 선교중국어연수 5기가 실시되었다.

초급A반 14명, 초급B반 9명, 중급반 4명으로 구성되어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중국어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8월14일~15일 수련회를 기점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교육부모임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번역부

격주로 토요일 3시 선교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더운 여름철이지만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나님의 열심에 조금이나마 충실하고자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시어 현재 10명이 스타디에 참여하고 있다. 감사드리고 상호 더욱 유익한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며 좋은 훈련을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제껏 함께 공부한 《宗教與中國傳統文化》는 <도교편>으로 일단 중단하고 《中國民俗學》을 새로운 관심으로 읽고 있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바란다. 그리고 빈미정 간사가 출산으로 일단 휴가에 들어가고 박혜영 회원이 계속 모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번역부가 계속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받드는 부서로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연구부

연구부에서는 여전히 기획사업으로 “中國社會主義時期的宗

教問題”라는 중국의 종교정책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번역중에 있다. 이번에 역시 CCRC의 “中國與教會”에서 종교소식을 번역하여 실기로 하여 1991년 7~8월호인 84호를 번역하여 출판부에 원고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이전에 번역하였으나 정리되지 않았던 소책자인 “중국기독교번역소사”의 정리 작업도 계속중이다. 그리고 중국선교에 관한 특강을 선교회 간사들을 주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려던 계획을 실행에 옮겨 ‘마르크시즘의 대기독교관’과 ‘毛思想’중에서 모순론, 실천론 및 통일전선전술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계속해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준비 완료되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중단 상태이다. 현재 연구부의 실제활동이 거의 중단 상태이므로 연구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린다.

출판부

출판부는 “중국을 주께로” 선교회보 13호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발간하였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중국선교 핸드북』이 두란노서원에서 출판되어 우리들 앞에 그 얼굴을 드

러내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출판부에서는 「기독교와 중국」 화보집을 출판하기 위해 타자를 완료했으며 현재 「중국기독교 백년사」 출판을 위해 타자중이다.

“최근중국동향”을 알기 위해 신문 스크랩을 협조해 주신 박주서, 김순임, 박애숙 회원께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린다.

이제까지 부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기수련회를 계기로 매월 첫째 수요일에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편집도안, 취재기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달란트를 가지신 분은 망설이지 말고 출판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출판부에 많은 회원을 보내주시고 일이 분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복음전도단 □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중국교포 60여명을 모시고 온누리교회와 협력하여 수련회를 가졌다. 참석자 중에서 30%가 결신하는 좋은 결과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고국을 방문한 중국교포를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마다 “교포 초청잔치”를 열어 CCC(정동)회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결신한 신자를 대상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여 명이 학습중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할 장소가 신림동에 마련되어(사랑의 집) 8월 22일 50여 명이 모여 입주감사예배를 드렸다.

양육리더를 위해 매주 목요일(오후7:30~9:30) 마다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서 이경준 선생님께 훈련을 받고 있다.

중국교포 초청잔치와 양육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회원동정 □

1. 박성주 대표간사가 학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교수해외연수차 소련, 동구를 둘러보고 7월 22일 귀국하셨다.
2. 8월 2일 빈미정 번역부 간사가 딸을 낳으셨다.
5. 석은혜 출판부 간사가 학술세미나 참석차 7월 26일 중

국으로 출국하여 8월 8일 귀국하였다.

6. 모퉁이들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중국, 북한선교사가 되려면」 세미나에 김성순, 김준미, 석은혜 간사와 운명자 회원이 참석했으며 김광석 간사가 강사로 참석했다.
8. 협력간사로 일하셨던 부지민 자매가 대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9. 이영희, 김신봉 회원이 7월 25일 교통사고로 목과 다리 부분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중에 있다. 위로해 주시고, 조속한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 김성곤 회원이 아들을 낳으셨다.
11. 중국어문선교회에서 협력선교사로 파송한 정선영 선교사가 선교지인 중국으로 9월 초에 출국한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2. 주안도 연구부 간사가 8월 28일 중국으로 출국한다.



기 도 제 목

I. 중국 선교를 위해서

1. 핍박받고 있는 조선족 신도들을 위해...
지난 6월 23일 기독교 삼자애국 위원회는 「북경에서는 崇文門교회만 조선어로 집회를 가질 수 있다」는 공문을 조선족이 모이는 교회에 보냄으로써 중국정부가 사실상 조선족신도들에게 종교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경 강화시교회 신도 300여명은 조선어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탄압으로 어려움에 처한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2. 최악의 홍수를 만난 홍수복구를 위해...
중국은 폭우로 인해 18개 省市를 잠기게 한 1백년 이래 최악의 홍수를 당했습니다. 사망자가 1,700여명, 이재민이 2억여명, 직접 경제 손실이 75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더 이상 피해가 늘어나지 않고 신속히 복구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3. 말씀에 갈급해 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서적이 보급되도록...
지금 중국은 기독교인 수가 크게 증가하는 데 반하여 성경 및 신앙서적은 아직도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시골지역의 성도들은 이를 구하기가 경제적으로나 종교정책상으로 힘든 실정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교포가 일주일에 1,00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을 통하여 성경 및 신앙서적이 지혜롭게 보급되도록, 이 사역에 많은 기독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한국교회가 올바른 선교를 위하여...
자신의 욕심, 과시, 성급함, 중국종교 정책에 대한 무지 등으로 중국 교회가 분열되고 물질적으로 시험에 드는 등 중국선교에 방해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선교를 지양하고 중국을 올바르게 알고 선교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과 연구가 진행되도록 기도하며 특히 한국교회에 선교 정보 및 대안을 제시할 중국선교전문지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외롭게 비밀리에 선교하는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 사역을 하고자 준비하는 정○○, 박○○, 김○○에게 합당한 준비와 형통함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6. 대륙의 모든 교회가 국가정책에서 지혜롭게 벗어나 신실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와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7. 극동방송국을 통하여 중국전지역에 능력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고 청취하는 중국영혼들이 늘어나도록 기도합니다.

II. 교포양육사역을 위하여

1. 본선교회는 4월 24일 방한교포 초청찬치 전도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육할 장소(신림동 사랑의 집)와 양육할 교포들을 보내주셔서 ○명을 모시고 양육 중에 있습니다.

- ① 이들을 섬기며 양육시킬 소명이 있는 헌신된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② 현재 양육 중에 있는 이들이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제자훈련을 잘받아 중국현지에 돌아가 선교적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 ③ 이 사역을 맡아 봉사하는 자들이 건강과 성령충만함 속에 거하도록 기도합니다.
2. 매주 월요일마다 방한교포초청전도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 ① 많은 교포들이 이 집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 ② 찬양, 설교, 레크레이션, 식사 등의 행사가 차질없이 준비되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합니다.
 - ③ 집회 때 마다 이름없이 봉사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쳐서 더욱 더 열심을 품고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인천에서 위해(산동성)를 잇는 한중 카페리호의 운행횟수가 주 2회에서 지금은 3회로 증편 운행되고 있어 한국을 방문하는 교포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 ① 배가 월, 수, 금요일날 인천항에 도착하는데 이들에 대한 집회장소 홍보와 전도가 시급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단체들이 인천에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 ② 인천에 교포가 머무르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지관이 인천지역에 조속히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Ⅲ. 중국어문선교회를 위해서

1.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정기세미나가 열립니다.

- ① 세미나를 통해 중국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사역방안이 모색되도록, 또한 회원들의 찬교 및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 ② 적합한 세미나 주제와 강사를 보내 주시도록...
2. 선교회 내에 기도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선교회 내에는 매월 셋째 화요일 철야기도회, 매주 금요기도회, 지부별기도회를 통한 중국선교를 위한 기도후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이때 기도의 동역자들의 적극적 동참과 기도후원을 부탁드립니다.
3. 회원들의 제자화 훈련
전회원을 대상으로 제자화훈련을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모입니다.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훈련을 받은 회원들이 교포양육사역에 직접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선교중국어 연수가 교육부 주관으로 개강되어 어학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 ① 학생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학습에 임하도록...
 - ② 중국선교에 필요한 어학연수 교재가 충실히 개발되도록...
 - ③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시간, 지혜를 주시도록...
5. 「중국을 주께로」 회지가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교회 및 사역자에게 선교정보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잡지로 발전해 나가도록...
6. 전문 연구사역자의 육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구원의 해외연수에 필요한 경비가 마련되도록 기도합니다.
7. 중국어문선교회 재정
선교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도구(복사기, FAX)가 채워지도록 ...

재 정 보 고 (6월)

수 입	지 출
후 원 금 1,970,000	사 레 비(6인) 1,200,000
철야예배헌금 25,000	도 서 인 쇄 비 502,540
현지사역자를 위한 헌금 35,000	임 대 료 300,000
	관리비및 각종세금 106,800
	교육비(편집) 100,000
	도서구입비 103,000
	통신비(전화·Fax) 42,200
	강사료(세미나) 30,000
	구 독 료 29,000
	후 생 비 77,990
	소 모 품 비 7,400
	우편발송료 70,960
	여비교통비 4,000
	세미나참가비 75,000
	테이프구입(강의) 7,000
	레이저프린터토너 110,000
	선교헌금(헌물포함) 30,000
	철야예배대관료 30,000
	잡 비 16,510
	현지사역자를 위한예치금 35,000
	선교여행예치금 150,000
수 입 계 2,030,000	
전 월 이 월 -1,847,465	지 출 계 ₩ 3,027,400
잔 액 182,535	차기이월 ₩-2,844,865

재 정 보 고 (7월)

수 입	지 출
후 원 금 2,662,000	사레비(6인) 1,200,000
교육부지원금 400,000	임 대 료 300,000
철야예배헌금 22,000	관리비(연료비외) 108,300
현지사역자를 위한 헌금 32,700	강사료(세미나) 30,000
	우편발송료 38,720
	소모품비 4,300
	복 사 비 6,680
	구 독 료 (신문) 6,000
	후 생 비 46,350
	통신비(전화) 40,260
	여비교통비 2,000
	철야예배대관료 30,000
	현지사역자를 위한 예치금 32,700
수 입 계 ₩ 3,116,700	
전 월 이 월 -2,844,865	지 출 계 ₩ 1,845,310
잔 액 271,835	차월이월 ₩-1,573,475

♡ 후원자상황(6월)♡

구규식, 강정애, 김구성, 김근수, 김승원, 김성순, 김학주, 김순임, 김길자, 김준미, 김승심, 김현주, 김중기, 김원영(5, 6), 김의득(1-6), 김순자, 김성례, 김성애, 김정은, 고희정(3-6), 남경화, 노숙자, 노재은, 남용희, 남궁양석(5-6), 문정희, 문승민(4-6), 박성주, 박지석, 박지화, 박종표, 박혜영, 박선남, 박순희, 박정숙, 박애숙, 박주서, 박희정(4-6), 방지거, 빈미정, 박원석, 박영자, 박정옥(5-6), 배종실, 백운대, 서기원, 서옥희, 석은혜, 신흥식(5-6), 안 천, 안병국, 양혜선, 주지혜, 윤연자(4-6), 이덕형, 이인수, 이영숙, 이승열(5-6), 이영숙, 임순자, 임중명, 오영미, 한승희, 장경순, 장미숙, 장혜량, 정 일(5-6), 정혜수, 주안도, 조성남, 최복순.
단체: 동송교회, 동부교회(대구), 평산교회, 방송대성경반, 신림교회, 충정교회, 촛불기도회.

♡ 후원자상황(7월)♡

구규식, 강정애, 김근수, 김길자, 김승원, 김구성, 김순임, 김성순, 김승심, 김준미, 김정은, 김학주, 김태희, 김신봉, 김만섭(4-7), 김영선, 고희정, 노숙자, 노순덕, 노재은, 남경화, 남영용, 문승민, 박성주, 박종표, 박혜영, 방지거, 빈미정, 박선남, 박희정, 박원석, 박영자, 박애숙, 박지화, 박지석, 박주서, 박정숙, 배종실, 백성호(1-6), 박순희, 부지민, 서옥희, 서기원, 석은혜, 손화자, 신흥식, 송창기, 안 천, 안병국, 양혜선, 이덕형, 이영숙, 이인수, 이혜숙, 이승열, 임순자, 임중명, 오영미, 윤연자, 한승희, 정혜수, 장경순, 장혜량, 장미숙, 정 일, 주안도, 조성남, 무명3.
단체: 동부교회(대구), 동송교회, 반월중앙교회, 신림교회, 은평교회, 평산교회, 충정교회, 서울방송대성경반, 부산방송대성경반, 교포선교회(광주), 서광문화사, 촛불기도회.
◎ 특별헌금: 김광석, 서 진, 무명.
◎ 헌물: 김경배(국민일보 구독권 6개월분), 임순자(설교 테이프 6개).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 3:19

특별기금적립현황(6, 7月)

명 목	이 월	수 입	지 출	잔 액
선교여행예치금	1,590,000	150,000	400,000	1,340,000
현지사역자를위한헌금	408,660	67,700	50,000	426,360
출 판 헌 금	1,201,000			1,201,000
사무실마련비	-1,490,000			-1,490,000
레이저프린터기대금	-1,800,000			-1,800,000
중국교포선교헌금	445,300			445,300
복사기구입지정헌금	500,000			500,000

- ◎ 7월부터는 선교여행예치금을 적립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선교여행지원금지원자: 김한성간사(중국), 석은혜간사(중국).
 현지사역자를위한헌금지원자: 이철협력선교사(싱가폴).

◇알 림◇

- 이경준 선생님 지도로 매주 목요일 (7:30~9:30)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서 중국교포 양육자 리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기를 원하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매주 금요일 12시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서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에 동참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매월 세째 화요일 저녁 10시에 정기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저녁(7:00~9:00)에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서 정기세미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의 은혜로 7월 15일 신림동에 교포들을 양육할 '사랑의 집'이 마련 되었습니다. 현재 월요초청잔치를 통한 결신한 교포들을 대상으로 양육 중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역에 봉사와 양육 등의 방법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중국어문선교회에서 협력선교로 파송한 정선영 선교사에게 후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구좌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정선영

구좌번호: 국민은행 084-01-0273-191

- 「중국선교핸드북」 출판감사에배를 9월 27일 낮12시에 본선교회 사무실에서 드립니다.
참석여부를 알려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비:10,000원(「중국선교핸드북」 기증, 점심제공)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 편집후기 □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23:1)

많은 것들이 부족했지만 목자되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심으로 무사히 착숙세미나차 중국을 다녀올수 있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울러 뒤에서 기도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기수견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치고 나서 순돌길 틈드없이 『중국을 주께로』 회지 편집을 서둘렀지만 늦어진 것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죄송함을 전합니다.

이번호에는 『특집』으로 방한중국교포 선교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 글을 계기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이 회보가 나오기까지 켜는듯한 무더위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께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지를 위해 회원 여러분께서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

제6기 “선교중국어 연수”

개강: 10월 7일 (주 1회 12주 강의)

“중국선교”의 일선에 나서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데 깊이 헌신하여야 합니다.

저희 선교회에서는 선교에 초점을 맞춘 언어훈련코스를 개설하여 선교를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 연수내용 ◇

초급

1. 초급A코스
 - 중국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
 - 교재: 초급중국어 I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재)
2. 초급B코스
 - A코스를 수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준
 - 교재: 초급중국어 II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재)

회화(낮반, 저녁반)

- 초급중국어 II를 수료했거나 그에 상당한 수준이 있는 분
- 교재: 주교재 -- 我的第一本聖經 (중국어로 강의)
부교재 -- 使徒信經 · 主禱文 外, 중국어 찬양

월	화	목	금
중급회화 (저녁반)	초급 B코스	중급회화 (낮반)	초급 A코스

- ◎ 매 코스마다 주 1회로 총 12주 실시되며 강의시간은 PM 7:00~9:00입니다.
- ◎ 목요일 낮반 강의시간은 AM 10:00~12:00 입니다.
- ◎ 모집인원: 각 반 10명씩
- ◎ 중급의 경우 2개, 또는 3개코스를 동시에 수강할 수 있음
- ◎ 수강료: 1강좌당 4만원 (교재비 별도) (2강좌: 7만원 3강좌: 10만원)
- ◎ 등록방법: 6월 24일-28일까지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전화로 신청접수
- ◎ 연수장소: 중국어문선교회
- ◎ 신청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2호)
☎ 594-8038, 533-5497